metro
메트로 2014년 7월 8일 화요일 www.metroseoul.co.kr

태풍 '너구리' 북상 제주도 어선 비상 제8호 태풍 '너구리'가 북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7일 어선들이 제주시 한림항에 정박해 있다. 기상청은 이날 태풍 '너구리'가 북상하면서 진로를 잡은 모도로 좋이 우리나라 전역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근접하는 9~10일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8일 밤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위안화 금융서비스 급물살 탄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합의 후 은행들 물밑작업 "영업기회 창출" "환 리스크 우려"…시각 엇갈려

중국의 위안화가 한국 금융산업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한·중 정상회담 합의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이 현실화되면서 이같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2억 인구를 자랑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경쟁력 약화로 신음하는 국내 금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중(對中) 의존도 심화로 인한 경제 종속 우려도 만만치 않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권은 위안화 허브 등을 추진하는 한편 양국 금융사 간 교차 진출과 한국 내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 각종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위안화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를 활용해 결제 통화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영업 기회를 창출하고 수출입 거래와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위안화 결제 규모 4배 늘어날 듯

지난 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은 '위안화 금융서비스 협력제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합의로 양국은 △위안화 청산결제 은행 지정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허용 등을 타결하게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한국 내 위안화 청산 결제은행으로 지정된 중국 교통은행 서울지점의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화 청산·결제란 중국 밖에서 이뤄지는 위안화 거래의 최종 결제와 대금 정산을 의미한다. 청산결제은행은 사실상 중국 인민은행의 역외지점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국내 은행들은 교통은행 서울지점에 위안화 계좌만 개설하면 곧바로 위안화 결제 업무가 가능하다.

뉴시밍 교통은행 회장은 '인민폐(중국 위안화) 청산업무 간담회 협약식'에서 "현재 700억~800억 위안인 한국의 위안화 결제 규모가 청산 결제은행 등장으로 3000억 위안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교통은행이 서울의 위안화 역외 직거래 시장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최상의 위안화 결제 서비스로 한국 금융기관, 기업, 금융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신규 수익모델 기대

국내에 설치되는 원·위안화 간 직거래 시장 역시 새로운 시장의 창출 기회로 꼽힌다.

그간 한·중 양국은 무역거래를 할 경우 중간단계에서 미국의 달러화를 이용해 결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통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실제 원·위안화 거래 시장으로 매일 시세가 형성되면 해외은행지부터 기업들까지 원·위안화를 직접 거래할 수 있어 비교적 합리적인 값으로 환전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금융회사들이 위안화로 무역 결제를 하고 위안화 예금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거래를 확대할 경우 위안화 허브 구축과 함께 신규 수익 모델 또한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투자가 제한된 중국 금융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위안화 적격기관투자자(RQFII) 자격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도 중국은행과 위안화 역외 허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MOU를 각각 체결했다.

◆원화 위상 약화 우려도

이번 합의 등에 따른 실제 효과는 아직 두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신용도가 낮아 수요와 거래량이 적을 수 있는 데다 정부나 금융사 등의 역량에 따라 그 효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거나 위안화 환 리스크에 대한 우려 역시 걸림돌로 작용한다.

여기에 800억 위안의 RQFII도 중국 금융당국이 개별 투자자들에게 기관별 한도 승인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안화 수요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노력도 가속화하고 있다"며 "위안화가 국제통화로 부상할 경우 역내에서 원화의 상대적 위상 약화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에 따른 국내 위안화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중국에서도 원화 사용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하얀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北,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김정은 체제 첫 '정부 성명'

북한이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김정은 체제 이후 처음으로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발표됐다.

'공화국 정부 성명'은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형식이다. 그동안 북한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포괄적 입장을 밝힐 때 정부 성명으로 발표했고 그 다음 권위있는 형식으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와 외무성 등의 기관 성명을 동원했다.

정부 성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3년 3월 세계적으로 북핵 문제를 부각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탈퇴 선언이다.

북한은 이날 김일성 주석이 사망 직전 서명했다는 통일문건 작성 20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한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남한의 대북정책 전환 등을 촉구하는 원칙적 입장을 담은 4개 항도 함께 천명했다. 4개 항에는 북과 남이 무모한 적대와 대결상태를 끝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하고 남한 정부가 동족대결정책을 '안보위해정책'으로 바꿀 용단을 내릴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응원단 파견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응원단의 국내 방문은 2005년 9월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이후 9년 만이다.

/김은경기자 [illegible]

"당의 뜻 이해해 주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던 도중 전략공천에 항의하며 농성 중인 허동준 동작을 지역위원장(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격vs방어' 청문회 기싸움

이병기 인사청문회 국정원 직원 잠입 정회 소동

7일 시작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간 정치자금법 위반과 탈세 의혹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이 후보자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과 북풍 관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후보자가 정치개혁이 화두로 부상하는 시기에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 국민적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맞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당시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불법자금을 받아 적발됐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정원 직원들의 야당 의원 감시 논란 끝에 회의시작 30여분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박영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제 뒤에서 저희 의원들의 자료를 찍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며 "국정원 직원이 청문회장에 들어와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해 청문회가 일시 중단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최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은 "최 후보자가 실제 거래액보다 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 등 작성해 서울 반포동 아파트 매입 때와 방배동 아파트 매도 때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를 이끌 수장으로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먹을거리 산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하는 등 주로 과학기술산업 진흥 대책 등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추며 최 후보자를 부각시켰다.

/재경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작심한 이병기 후보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야당 의원 질의자료 촬영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빈익빈 부익부 IT업계

기자 수첩

장윤희 <경제산업부 기자>

스포츠에서는 어제의 패자가 오늘의 승자가 된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그런 반전을 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최근 SK텔레콤은 광대역 LTE-A 전세계 최초 상용화 기록을 세웠다. SK텔레콤은 꼭 1년 전에도 LTE-A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다.

화려한 기록 뒤에는 각각 통신·제조 업계 1위 SK텔레콤과 삼성전자의 막후 전략이 있었다.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상용화는 삼성전자의 전용 스마트폰 물량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7월 1일 전국 광대역 LTE-A 개막을 앞두고 KT와 LG유플러스도 이미 광대역 LTE-A 서비스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문제는 단말기다.

최신 서비스라 이를 지원할 단말기 수급이 부족하다. 당신이 통광을 손에 쥐고 있다면 업계 점유율 50%, 30%, 20%의 거래처 가운데 누구를 택하겠는가. 3월 27일 삼성전자 갤럭시S5가 SK텔레콤을 통해 먼저 출시된 것도 업계 1위의 영업정지 기간을 피해 수익을 높이려는 선택이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기업에서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것이 가장 '최선'이란 냉엄한 논리를 입증한 사례였다.

반면 시장 위치가 낮은 기업들의 유리천장은 점점 두꺼워진다. 1위 기업들은 1위 타이틀을 굳히며 격차를 더욱 벌린다. 어느새 2, 3위 기업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난다. 아이언 시리즈가 호평을 받으면서도 경영 위기에 빠진 팬택, 네이버에 1위를 한번 뺏긴 뒤 절제된 다음이 대표적이다.

패자부활전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한번 뒤처지면 일어나기 어려워졌다. 사회의 빈부차만큼 기업의 빈부차도 커지는 세태가 씁쓸하다.

뉴스&뉴스

박 대통령, 10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여야 주례회동 이후 "10일 오전 10시30분에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대통령과 회동하기로 했다"면서 "국민의 민심을 전솔하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동민, 동작을 전략공천 수용하기로

●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 후보로 전략공천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고심 끝에 당의 결정을 수락하는 쪽으로 7일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허동준 전 민주당 위원장은 무소속 출마의 배수진을 치고 5일째 당 대표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 대통령 눈·귀 막는 '만회상환'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박근혜정부 2기내각 인사 대상자를 비난하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사람으로 '만회상환'이라는 이야기가 돌아다닌다"고 지적했다.

'만회상환'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씨,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지칭한다.

"천안함 애도기간 골프에 아파트 투기도"

정종섭 후보자 추가 의혹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터져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정 후보자가 1992년 12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한신14차 아파트 104㎡를 1억9000만원에 매입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의 현재 평균 매매가격은 9억1000만원대로 매입 당시보다 7억3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또 정 후보자는 1997년 인근 신반포 한신2차 아파트(150㎡)도 3억7500만원에 구입했다. 현재 매매가격은 16억원 선이다.

노 의원은 "살지도 않을 아파트를 구입한 점이나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점으로 볼 때 정 후보자는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경기도 모 골프장이 국회에 제출한 회원권 사용내역을 근거로 "정 후보자가 2010년 4월 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면서 "2010년 천안함 침몰로 전 공무원에 비상대기령이 내려져 있던 시기에 공무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지적했다.

/채현준기자

'김영란법' 계류 언제까지…

여야 소위 구성도 못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등이 계류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로 공방을 벌이면서 6월 국회가 개회한 뒤 20일이 지나도록 법안소위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무위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법안제출 권한이 있는 5개 소관 부처를 관할하는 만큼 법안소위 복수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문제는 양당 원내지도부 협의 과정에서 이미 결론난 사항이라며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여야간 심의는 단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채현준기자

'근로장려금' 9월2일까지 재신청

기한 후 신청 제도 도입　4대 요건 갖춰야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보너스로 불리는 근로장려금에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돼 실연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난달 2일 만료됐지만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마련돼 9월 2일까지 신청하면 기한 전 근로장려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10%의 감액없이 100% 지급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이다.

신청 요건은 배우자나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60세 이상의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13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족의 경우 연소득 기준은 각각 2100만원, 2500만원이다. 또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한다. 가족 재산합계는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사람은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국번없이 126. /김민준기자

질의 10분10초… 답변 56초

시민단체, 청문회 분석…"후보자 역량 검증 집중" 지적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평균 질의시간은 10분 10초인 데 반해 답변시간은 56초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7일 발간한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박근혜정부 1기 내각 장관후보자 4명(서남수·황교안·윤병세·조윤선)에 대한 인사청문회 영상을 분석한 결과 '장황한 질의'와 '짧은 답변'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네 후보자에 대한 총 질의시간은 921분 22초(71.8%)인 반면 답변시간은 362분 52초(28.2%)였다. 특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7분 23초간 이어진 질의에 7초간 답변을 했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분 질의에 59초 답변을 한 경우도 있었다.

야당은 386분 39초(69.7%) 질의에 168분 42초(30.3%)의 답변 시간을 보였고, 여당은 580분 4초(75.5%) 질의에 183분 38초(24.5%) 답변으로 여·야간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의원이 후보자의 답변을 듣기보다는 면박주기, 다그치기식 공격성 질의를 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답변시간을 확보해주고 후보자에 대한 역량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한 국무위원 후보자 10명의 인사청문회 질의 성격을 개인사, 업무능력, 정책으로 나눠서 살펴본 결과 7명이 개인사 질의를 40%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허술한 임 병장 체포작전"

국방부 검열 문책키로

국방부가 강원도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22) 병장의 체포작전 과정에서 드러난 군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검열에 착수했다.

군 소식통은 7일 "국방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이 오늘부터 10일까지 고성군 22사단을 방문해 검열 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검열단은 헌병과 작전, 인사 기우 등 4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의 조사결과 수색팀은 임 병장을 세 차례 이상 접촉하고도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병장은 수색팀과 여섯 차례 접촉됐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색 작전에 투입됐던 소대장 김모 중위도 같은 수색팀의 오인사격으로 팔에 관통상을 입었다. 검열단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휘책임과 문책 범위 등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정윤기자

교황 방한 대비 총기 영치 7일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 무기고 앞에서 경찰관들이 8월 14~18일 교황 방한에 앞서 일시 영치된 개인 소지 총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애도기간' 미래부 공무원들 골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들이 세월호 사고수습이 한창이던 기간에 업계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됐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 5월 최문기 미래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 이 같은 미래부 소속 서기관급 공무원과 함께 업계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을 알고, 최근 미래부에 이를 통보했다고 7일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문제의 정책 보좌관은 지난 4월 초 제주도에서 열린 미래부 관련 행사에 참석하면서 가족들을 데려가 민간업체로부터 체류비 등을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조만간 징계 수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해경 흡수 경찰 "해사국 신설"

해양경찰이 해체됨에 따라 해경 수사·정보 분야를 넘겨받는 경찰이 해사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7일 "내부적으로 해사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해양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해경의 수사, 정보 조직을 분산해 경찰의 정보, 수사국에 개별적으로 흡수시키는 것보다는 별도의 해사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사국장은 경무관급이 맡고, 해사국이 설치되면 산하에는 해양정보과, 해양수사과 등 기능별로 과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청장은 "해경 수사·정보 업무 중 해상에서 초동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를 해경이 일차적으로 한 후 경찰에 넘기게 할지 경찰이 직접 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준기자

수출입업무 능숙한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내 적성을 찾아라! 방송통신대 Q&A ⑨ 무역학과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에게 지금 하는 일이 잘 맞는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영감결에 대학에 진학했거나 결혼을 하면서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 둔 주부도 있다. 한 학기 30만원대의 적은 등록금으로 국립 한국방송통신대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알아본다.

Q 무역학과는 어떻게 개설되었나

A 수출입 업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무역활동 영역에 대한 실무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1992년 개설되었습니다. 등록금은 35만원 내외이며 다양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Q 무역학과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나

A 무역학과에서는 학과의 특성상 일선 실무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무역이론, 무역정책, 국제경영 그리고 국제통상 등 관련 교과목들을 개설하였습니다. 무역전반에 걸쳐 보다 심도있고 실무 지향적 수출입 관련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 무역 업무를 접하는 데 있어서 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졸업 후의 진로는 어떻게 되나

A 졸업 후에는 무역회사, 일반기업체, 은행권에 진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국제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3668-4680) /윤다혜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학생들이 새터(MT)에서 단체 줄넘기를 하고 있다. /방송대 제공

'김형식 살인교사' 1차증거 분석 끝

살해자 매일기록부 등 집중 검토… 보강 수사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차 증거 분석을 마치고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주말 동안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증거자료 분석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김 의원과 공범 팽모(44·구속)씨를 비롯해 주변인의 진술 내용, 통화내역, 은행계좌 기록 등이다.

검찰은 특히 살해당한 송모(67)씨의 장부인 '매일기록부' 원본을 손씨 가족으로부터 제출받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김 의원 등의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방침이다. 구속기간은 12일까지다.

살인교사 사건과 별개로 러일제결장치 수입 납품업체 AVT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수사한다. 검찰은 김 의원이 병씨 아내의 계좌를 이용해 AVT 측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윤다혜기자

'소서' 무더위 기승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小暑)인 7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때로에 텔기로 된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고 제자리 돌려놓겠다"

조희연 교육감 TF 구성… 자사고는 지원정책으로 전환 유도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반고가 제자리를 찾도록 하겠다"며 중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조 교육감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일반고 전성시대 TF'를 구성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조사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확대 ▲교사 전문성 향상 지원 ▲진로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전담 상담사와 자기주도 학습 코칭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고 살리기 일환인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자사고가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부모 반발 등을 고려해 일반고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지원 정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재평가와 일반고 경쟁력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할 TF를 다음달 말까지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쯤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혁신학교와 관련해 "신설학교 위주로 혁신학교 모델을 적용할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용린 전 교육감 시절 한 학교당 1억5000만원에서 6000만원대로 줄어든 예산도 1억원대로 늘릴 계획"이라며 "혁신학교는 올 하반기에 10여개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정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일주일째를 맞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의 교육 공약 이행 계획들을 밝히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7백만 그릇 돌파한 사랑의 '밥퍼' 7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밥퍼나눔본부에서 열린 '밥퍼 기적의 7백만 그릇' 기념행사에서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 후원단체 관계자, 홍보대사 등이 대형 비빔밥을 비비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7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교직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연간 4시간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교사, 체육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 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교직원이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일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응급처치교육을 받아야 하는 보건교사, 체육교사 등은 올해는 우선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다혜기자

교수 채용 미끼로 사기

여약사회 부회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사립대 교수로 채용시켜주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한국여약사회 부회장 정모(72·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2월 임모(73·여)씨에게 "내가 서울 S대 재단 재무이사다.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이사회에서 딸을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4억원을 송금받는 등 교수 채용을 미끼로 3명에게서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송금한 자명계좌를 검찰이 수사 중이다. 돈을 보낸 사람도 문제가 되니 검찰에 손을 써보겠다"고 속여 임씨에게서 2억원을 더 받아 챙겼다. /윤다혜기자

봉침 맞은 50대 쇼크사

6일 오후 8시5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가정집에서 봉침을 맞던 A(57·여)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던 A씨는 사망 30분 전 봉침으로 같은 병에 효험을 봤다는 지인 B씨(60·여) 집을 찾아 손가락 10군데에 침을 맞았다. B씨가 침술에 사용한 벌은 양봉을 하고 지내던 양봉업자에게 구매한 것으로 150~200마리당 1만5000원선으로 알려졌다.

검안의는 A씨가 벌의 독성에 의한 과민성 쇼크인 '아나필락틱 쇼크'로 숨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다혜기자

폐비닐, 보조연료 재탄생

서울 강서구는 올해 1~6월 1200t에 달하는 관내 폐비닐을 발전소와 제철소 등의 보조연료로 재탄생시켰다.

구는 폐비닐이 원유를 주원료로 하는 가연성 물질이라는 점에 착안해 폐비닐을 폐기물 고형연료로 사용키로 했다.

'협동조합 창업' 수강 모집

서울 송파구는 11일까지 협동조합 창업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창업 아카데미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송파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 월·수·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씩 총 6회에 걸쳐 운영된다.

도심 휴양지 '야외수영장'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달 28일 문을 연 동대문구 야외수영장이 도심 속 휴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중랑천 제1체육공원에 위치한 동대문구 야외수영장은 전체면적 5070㎡에 각종 놀이시설과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Russia | metro France | metro Hong Kong | metro Brazil

지젤 번천 란제리 1호점은 파리에

세계적인 모델인 지젤 번천이 프랑스 파리에 란제리 1호점포를 열었다. 원래 자신의 고향인 브라질에 자신의 이름을 딴 란제리 가게를 열려 했던 번천은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자 결국 파리에 1호점을 열게 됐다. 'Gisele Bundchen Intimates'라 명명된 그녀의 가게는 파리의 라파예트 갤러리에 있다.

구글 제재로 사용자 불만 급증

중국 정부가 구글 서비스에 제재를 강화한지 한 달여 되자 구글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기업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구글은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만리방화벽(만리장성과 컴퓨터 방화벽의 합성어)'의 제약을 받고 있다. 만리방화벽은 최근 몇 년간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의 접근을 막는 데 사용됐다.

"편하게 장 보세요" 가상 슈퍼마켓 눈길

휴대전화를 이용해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 브라질에서 이러한 일이 현실화됐다.

최근 메르코지 딜리버리(Delivery Mercodel) 슈퍼마켓이 개발한 장보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몇 분 안에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골라서 휴대전화로 구매할 수 있다.

9일까지 피녜이루스와 파리아 리마, 파울리스타 지상 파울루 등의 지하철 역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전시 된 전광판이 설치된다.

이용자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당 제품의 QR코드를 촬영하는 것만으로 직접 슈퍼마켓에 가지 않고도 편하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 전광판에는 약 90 종류의 물건이 진열돼 있는데 정오 전까지 구매한 물건은 당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물론 배달비 5 헤알(2200원)도 부과된다.

메르코지의 CEO인 파비우 캄푸스는 "고객들이 단시간 내에 간편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고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파울루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이 가상 슈퍼마켓을 리우데자네이루와 벨루 오리존치, 캄피나스, 쿠리치바 등의 도시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휴대전화를 통한 구매 외에도 이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약 2000 종류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업체 측은 항상 바쁜 일정에 시달리는 상파울루 시민들에게 온라인 쇼핑몰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메트로 브라질 정리=손유진 인턴기자

날개 돋친 듯 팔리는 '황금 푸틴폰'

아이폰5S에 푸틴 얼굴 새겨… 한 대에 400만원에도 관심 후끈

최근 이탈리아에서 한정판으로 제작된 일명 '푸틴폰'의 마지막 구매자가 알려지면서 러시아에서 푸틴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푸틴폰은 전체가 도금된 애플 아이폰 5S 기종의 튜닝폰으로 전화기 뒷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얼굴과 러시아를 상징하는 쌍두독수리 문장이 새겨져 있다. 이탈리아의 '벨라 벤나' 사가 제작하고 보석 브랜드 캐비아(Caviar)가 판매한다.

푸틴폰의 정식 명칭은 '캐비어 수프레모 푸틴(Caviar Supremo Putin)'이다. 보석 브랜드 이름에 '최고 지도자'를 뜻하는 단어 '수프레모'를 붙인 것이다. 푸틴폰은 한정판으로 44개만 제작됐다. 마지막 구매자는 러시아의 유명 배우이자 감독인 이반 오흘로비스틴으로 알려졌다.

오흘로비스틴은 "푸틴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서 푸틴폰를 구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화기 판매 수익금은 모두 어린이 암센터에 기부돼 소아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쓰인다"며 "14만7000 루블(약 432만원)이라는 비싼 가격이지만 경매를 통해 선뜻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푸틴폰 제작 업체는 오흘로비스틴 이외의 나머지 구매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영화배우와 TV 쇼 진행자, 석유회사 임원, 소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 대부분 유명인사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했다고 귀띔했다.

업체 측은 "고가이지만 푸틴폰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며 "이는 푸틴 대통령의 높은 인기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비범한 인물이고 정치적 결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러시아 국민이 많다"며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휴대전화를 소유하는 것을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벨라 벤나 측은 푸틴폰의 인기가 좋은 만큼 추가 제작을 고려 중이다.

이와 관련, 일부 네티즌은 "나도 하나 가지고 싶다"며 대통령폰에 관심을 표했다. 반면 "미국 아이폰에 이탈리아 보석 브랜드? 이게 무슨 애국심이냐"며 어이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스타니슬라프 다이첸코 기자 ·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7일>

코스피 2005.12 (-4.54)
코스닥 553.15 (+0.25)
금리 2.61 (변동없음)
환율 1012.20 (+2.50)

문 열고 냉방' 단속 첫날 문을 연 채 냉방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첫날인 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화장품 판매점 직원이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직자 61% "피서 포기"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여름 피서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신입 구직자 210명을 대상으로 '올 여름 피서 계획'을 조사한 결과 61%가 '피서 갈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68%,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45.3%), '취업 준비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서'(39.8%), '취업한 후에 당당하게 가고 싶어서'(39.8%), '구직자에게는 사치인 것 같아서'(35.9%) 등이 뒤를 이었다.

만약 현재 취업한 상태라면 휴가를 바로 떠났을 것이라는 답변이 71.1%에 달했다. /이국명기자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81
발행인 겸 편집인 남궁호
사장 겸 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31 3
독자센터 02)721-9865
[illegible]

"배당률 해외기업 절반 수준 높여라"

상장사 세제혜택 추진…패널티 적용도 검토 중

Issue&View 배당 '낮은 잠재 추진 왜?

/유현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당근으로 세제 혜택을 단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외 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국내 상장기업들의 배당률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받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배당을 과도하게 적게 하는 기업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의 정책을 검토 중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과거 발언을 토대로 볼 때, 최 내정자 부임 후 배당 활성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관련 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배당에 대한 여러 시각의 주장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상장기업들의 저배당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받는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세계 주요 44개국의 증시 중 한국의 배당성향은 11.65%로 아르헨티나(11.29%)를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다.

뉴질랜드가 76.09%로 가장 높고 미국(32.28%), 영국(51.62%), 독일(38.41%), 일본(27.94%) 등 선진국이나 대만(47.80%), 태국(43.52%), 인도네시아(38.84%), 중국(31.73%) 등 다른 신흥국보다도 현저히 낮다.

한국의 배당수익률은 1.33%로 최저를 기록했다. 중국(3.85%), 대만(3.45%), 독일(2.98%), 미국(2.11%), 일본(2.07%) 등 2~4%대인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해외기업들의 배당성향이 30~40%인 반면 한국기업은 18%로 절반 수준"이라며 "특히 저성장 기조에 배당을 대안 투자지표로 삼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에서 주주친화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배당 확대 정책이 양날의 검 측면을 갖고 있다고 본다.

현재 국내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지난 2010년 12.72%에서 지난해 7.26%로 4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국내 기업들이 연간 벌어들인 돈을 배당으로 풀지 않고 현금으로 내부에 비축해놓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등 해외 상장기업들의 견조한 ROE는 지속적인 배당 성장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여력 비축을 위해 배당보다 현금 유보 쪽을 선호했다"며 "자금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대외환경 등을 감안하면 좌악시할 수만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2기 내각의 경제팀을 이끌 최 내정자가 배당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에 대한 신념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관련 정책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업의 수익이 배당 형식으로 시중에 풀리면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들이 배당수익률을 1%포인트 올릴 때마다 8조원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안전에 관한 모든 것'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안전장비 전문업체 부스를 찾은 관람객이 화학복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은행서 돈 빠져나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여파로 개인 자산가들의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7일 한국은행의 '2013년 하반기 은행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계좌당 잔고가 5억원을 넘은 저축성 계좌는 10만8010좌로, 6개월 전보다 1990좌 줄었다. 5억 초과 계좌가 가장 많던 2012년 6월말에 비해서는 1만4590좌가 감소했다.

한은이 매년 6월과 12월 반기별로 집계하는 이 통계에는 기업자유예금 등 기업이나 기관의 예금도 포함돼 있지만, 개인계좌만 분리하면 감소폭은 훨씬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5억원 초과 정기예금은 지난해말 7만2400좌로, 하반기 6개월 동안 2940좌가 줄었다. 이에 비해 저축성 예금이지만 기업 고객 대상인 기업자유예금(2만5860좌)은 750좌가 증가했다. 5억원 초과 계좌에 든 저축성 예금액은 404조1970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17조1600억원(4.1%) 감소했다. 정점을 친 1년6개월 전보다 21조2970억원 이탈한 셈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기피 심리도 이어지면서 거액 계좌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illegible]

우체국알뜰폰 판매 627곳으로 확대

중장년층서 인기…비결은 '저렴한 요금'

우체국알뜰폰 판매 우체국이 8월부터 627곳으로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10일 우체국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130곳 확대한 데 이어 8일부터 268곳을 추가 확대해 총 627곳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우체국알뜰폰은 중장년층의 가입이 많아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지역 주민들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읍·면소재 우체국의 판매 시기를 앞당겼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10일부터 읍·면지역에서 판매를 시작한 우체국의 50대 이상 가입자 점유율은 63.7%로 시·군·구지역의 판매 우체국과 비교해서 5.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알뜰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저렴한 요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1개월 이상 사용한 고객의 평균 납부액은 월 평균 1만4388원으로, 지난해 1만6712원보다 13.9%나 낮아졌다.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당 월 평균요금(ARPU) 3만3929원과 비교하면 57.6% 저렴하다.

앞으로는 우정사업본부가 이달 중순 출시하는 '다드림 체크카드'를 이용해 통신비를 더 절감할 수 있다. 다드림 체크카드로 알뜰폰 통신료를 자동이체하면 통신요금의 10%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이국명기자 [illegible]

하나투어리스트

싸다고 당황말고 예약! 딱! 끝! 따져보고 필수!

특가 끝판왕

하나투어리스트

검색창에 하나투어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많은 특가 상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럽

[영국/프랑스/스위스/이태리/오스트리아/독일]
서유럽 6개국 12일
2,590,000부터
▶7월 17,31일/8월 7,14,21,28일

[러시아/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러시아/북유럽 5개국 12일
3,490,000부터 ▶8월 14,21일/9월 4,18일

동남아

보라카이 4일/5일
379,000부터 ▶7월~8월 매일출발

세부 ★ 너디제바크 리조트 5일/6일
349,000 ▶7월 18일
499,000 ▶7월 15,16,17,20,25일

베트남(하노이/하롱베이) 4일/5일
299,000 ▶8월 29,30,31일
389,000 ▶7월 15,21일/8월 19,26일

중국

북경 ★ 발마사지+서커스포함 4일
139,000 ▶7월 15일
169,000 ▶7월 18,20,22일

상해/항주/주가각 4일
229,000 ▶7월 17일/8월 25일
249,000 ▶7월 15일/8월 17,19,27일

계림/양삭(이프) 5일/6일
399,000부터 ▶7월~8월 매주 월,수,목,토

일본

규슈여행 유후인 마을 관광 3일
499,000
▶7월 15,16,17,18,19,24,27,31일/8월 6,7,20,21,28일

오사카(교토/나라/고베) 3일
549,000 ▶7월 16일
599,000 ▶7월 15일/8월 18,20,25,27일

도쿄(하코네/시즈오카/요코하마) 3일
599,000부터 ▶7월~8월 매일출발

아오리 사과 첫 출하 농협유통은 7일 경북 성주에서 첫 수확한 아오리 사과를 100g 당 660원에 출시했다.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 직원들이 이날 아오리 사과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동부제철 자율협약 개시

은행들 충당금 비상

동부제철 채권단이 자율협약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운데 동부그룹 계열사들의 유동성 위기는 여전히 산재해 은행권에 비상이 걸렸다.

회사의 유동성 위기로 이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상당 규모의 충당금을 쌓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은 동부그룹 비금융 계열사에 무담보로 거액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자율협약 개시 여부가 결정된 동부제철의 제1금융권 여신은 1조8500억원이다. 대출채권이 1조37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회사채 200억원, 기타 채권 4700억원 등이다.

이 중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산업·수출입·우리·하나·신한·외환·국민 등 7개 은행의 여신 1조6800억원에 설정된 담보는 1조2300억원이다. 즉 4500억원의 여신에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것이다.

담보가 없으면 채권을 회수할 확률이 급격히 낮아지며 은행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동부그룹의 자회사 가운데 동부메탈의 경우 제1금융권 총여신 2300억원에 대한 담보는 400억원(15.7%) 정도다.

이밖에도 동부건설의 제1금융권 총여신 2900억원에 대한 담보도 560억원(19.1%)이며 동부CNI의 제1금융권 총여신 700억원에 대한 담보는 200억원(28.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만약 CNI·메탈·건설 등 다른 계열사의 자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 등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채권단의 여신 회수에도 비상이 걸리게 된다.

한편 동부제철의 경우 자율협약이 개시되면서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여신분류 등급을 정상에서 요주의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은행이 동부제철 공동관리에 합의한다는 동의서를 모두 보내와 자율협약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동부제철 공동관리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농협, 하나·신한·우리·외환·기업은행 등 모두 9곳이다. /백아란기자 alive@

하나·외환은 '조기통합'?

비용·수익 시너지 기대…외환 노조는 반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을 언급한 가운데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정태 회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을 거론했다.

김 회장은 "이제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나·외환은행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을 보니 이제는 정말 통합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 회장이 조기통합 카드를 꺼낸 것은 하나금융의 최근 수익성 악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의 수익성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조2224억원, 2012년 1조602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9338억원을 기록하며 신한금융그룹의 순이익 1조502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분기 당기순이익은 1927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다. 더욱이 외환은행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이 3600억원으로 지방은행인 부산은행(307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김 회장이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조기 통합 논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금융 측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을 통해 이익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IT 비용의 경우 통합을 통해 연간 세전 30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지점 등을 하나로 묶을 경우 가격 경쟁력이 생겨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구상을 실현하려면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이라는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

외환은행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김정태 회장은 비용 절감을 운운하지만 외환은행의 가장 큰 비용은 바로 하나지주로 인한 것"이라며 "하나지주가 인수 전후 외환은행에서 빼내간 돈은 이미 2조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외환은행의 생존권을 곧바로 겨냥한 이번 만행에 대해 외환은행 직원은 7월 12일 전국집회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기대효과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며 "무리한 통합 추진으로 하나금융 내부에서 제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은 외환은행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한국산 전기밥솥 보는 중국 관광객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산 전기밥솥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면세점 업계는 원화강세를 반영해 국내 브랜드 제품 상품의 달러 표시 판매가격을 평균 4% 인상했다. /연합뉴스

개인회생 신청했다 집 경매 넘어가

금감원 주의 당부

A씨는 아파트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중 상황이 어려워지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니 금융사가 이자납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이자를 받지 않아 멀쩡한 대출이 연체됐다.

B씨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더니 금융사에서 연체 독촉도 없이 "별제권을 행사한다"며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민원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 등 담보대출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담보권을 가진 금융사는 별제권이 있어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청자 대부분이 이를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별제권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회생 신청 여부를 떠나 담보대출을 갚지 않아 연체되면 은행 등이 경매를 통해 집 등을 팔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자인 민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후 법원의 변제 중지 명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이자를 받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별제권 관련 불이익 내용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 서식을 도입하고 발급 신청 시 안내하도록 했다.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에 개인회생 요청 문의 시 별제권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주택담보채무자의 회생을 돕고자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김현정기자 h.kim@

비상장법인 5곳에 과징금

상반기 '공시의무 위반'

상반기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 중 비상장법인이 36%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비상장법인 일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시위반사항으로 조치된 법인은 105개사, 12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비상장법인이 38개사 44건으로 각각 전체의 36%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공시의무를 어긴 비상장법인 중 5곳, 5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상장법인의 위반 유형별로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이 13개사(14건)로 전체의 31.8%를 차지했다.

이어 유상증자 합병 등 주요사항보고가 5개사(5건), 증권신고서·소액공모 등 발행공시가 1개사(2건)로 집계됐다.

나머지 22개사(23건)는 투자설명서 제출의무 일제점검 결과 적발된 곳이다. /김현정기자

준중형급에 1.2ℓ 터보 얹는다

1.6 가솔린 버금 출력… 최대토크는 더 높아
내년 파리 내년 제네바 모터쇼 등장 '유력'

현대자동차가 사상 처음으로 준중형급 승용차에 1.2ℓ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한다.

현대차는 유럽에서 i30와 i40의 부분 변경 모델을 테스트 중인데 이 가운데 i30에 1.2 가솔린 터보(T-GDi) 엔진을 얹을 예정이다.

현대차가 2012년에 시제품으로 선보였던 1.2 카파 GDi 터보 엔진은 최고출력 120마력으로, 기존 1.6 GDI 엔진(140마력)에 버금간다. 최대토크는 19.3kg.m로 1.6 GDi의 17.0kg.m를 능가한다.

고압 연료 공급시스템을 갖춘 이 엔진은 최대 150바(bar)의 압력으로 실린더 안에 연료를 분사한다. 터보와 달리, 스프링 타입의 고압 펌프가 배기 캠축의 회전에 의해 작동하며 고압으로 분사되는 연료는 더욱 미립화와 공기 활용률을 증대해 인접적인 연소를 이룬다.

T-GDi 전용 텀블(흡입) 강화형 흡기 포트도 적용했다. 이는 흡입 공기에 의한 텀블 유동을 발생시켜 연소실에 직접 분사되는 연료와 빠르게 혼합기를 발생시키면서 엔진 성능과 연비를 향상시킨다.

터보 엔진은 자연흡기와 달리 고난이도와 기술이 요구된다. 특히 높은 성능으로 마모가 발생하기 쉽고 높은 강도의 밸브 시트가 필요하다. 이 밸브시트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 원가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현대차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개당 0.5달러의 원가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i30 마이너 체인지 모델은 올가을 파리 모터쇼 또는 2015년 제네바 모터쇼에 등장할 전망이다. 현대차 i30는 국내에서 1.6 가솔린, 1.6 디젤 터보, 2.0 가솔린 등 3가지로 판매되고 있다. i30 1.2 가솔린 터보 모델의 국내 판매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시욱기자 fatman@metroseoul.co.kr

LG전자 헌혈캠페인 LG전자가 이달 말까지 국내 12개 사업장에서 '라이프스 굿 위드 LG' 헌혈 캠페인을 다고 7일 밝혔다. 홍보대사인 세계 복식 전 챔피언 코스타 쥬(오른쪽)가 헌혈을 하는 모습. /LG전자 제공

구직자 "근무 분위기 좋으면 OK"

희망 연봉 마지노선은 2030만원

구직자 대부분이 근무분위기가 좋으면 희망연봉보다 낮아도 입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7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구직자 621명을 대상으로 '입사 희망 연봉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성 구직자는 2780여 만원, 여성은 2420여 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대졸 남성 신입직 연봉 자료와 비교해 볼 때 대기업(3707만원), 공기업(3065만원), 외국계 기업(2980만원)보다 적지만 중소기업(2580만원)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구직자들은 연봉수준이 희망보다 낮아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65.9%·복수응답) '야근이 잦지 않고 개인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곳'(36.4%)이면 입사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를 배울 기회가 충분한 곳'(31.1%) '직장 동료 간 친밀도가 높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곳'(26.9%) 등에 대한 구직자들의 선호도 높았다.

중소기업도 친밀한 근무 분위기와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개인 여가 시간을 보장해 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잡코리아는 설명했다.

한편 구직자들의 희망 연봉 마지노선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남성은 2030만원, 여성은 1830만원 이하면 입사를 포기하겠다고 구직자들은 밝혔다. /이국명기자 kmlee@

기업고객 전용 상담공간 오픈 KT는 서울 강남구 올레플라자 강남점에 통신 금융 전력, 솔루션 등의 기업용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업고객 전용 공간을 열고 상품 소개와 전문적인 비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KT 제공

경영주치의 처방으로 매출 220%↑

대한상의 경영자문단 자문횟수 5000회 돌파

#서울 소재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업체 에이치에스아이테크는 업계 내 경쟁 심화로 인한 수주물량의 감소로 영업활동 전반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영대 대표는 돌파구를 찾고자 대한상의 경영자문단을 찾았다. 경영자문단은 경영전략·인사노무 전문가 황윤상 위원(전 한전KPS 대표)을 급파했다. 황 위원은 SWOT분석을 통해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도록 돕고 영업활동 과정의 문제점, 조직관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갔다. 또 정기적으로 업계 동향을 분석하고, 수주 목표를 조정해 나갔다.

그 결과 상의 자문단의 처방은 조금씩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수주현황이 경쟁사에 비해 크게 오르고 조직도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2011년 50억원의 매출을 올린 후 2012년 33억, 2013년 34억으로 급감했던 매출도 올해 상반기에만 35억원의 매출 확보를 기록하며 급반등에 성공했다.

중소기업 경영주치의로 입소문이 난 대한상의 중소기업 경영자문단이 발족 5년 만에 자문 횟수 5000회를 돌파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중소기업 경영자문단은 7일 "지난 2008년 12월 출범한 경영자문단의 자문횟수가 출범 5년만에 5208회를 기록했다"며 "100여명의 자문위원이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펼친 자문이 효과를 거두며 올 한해 2000회가 넘는 자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출신 CEO와 임원 114명으로 구성된 대한상의 중소기업 경영자문단은 전국의 중소기업을 방문해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 노무, 생산품질, 기술개발 등 경영전반에 걸쳐 무료로 자문을 실시한다.

상의 경영자문단의 처방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기업 요구에 따라 특정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원포인트 자문'에 있다. 아울러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자문인 '종합경영자문'과 6개월 이상의 밀착자문을 통해 경영해법을 제시하는 '경영멘토링'도 중소기업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태균기자 ktk@

GM, 2015년형 쉐보레 트랙스 출시

블레이즈 레드 색상 추가·18인치 휠 적용

쉐보레(Chevrolet)가 트랙스(Trax) 2015년형 모델의 사전 계약을 7일부터 시작했다.

2015년형 트랙스는 블레이즈 레드(Blaze Red) 외장 색상을 새로 도입했으며, 18인치 알로이 휠을 적용했다.

트랙스는 2015년 모델 출시와 함께 기존 최상위 등급 모델에서만 제공하던 가죽 시트를 중간 등급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LT레더 패키지를 신설했다. 고객 선호도가 높은 편의사양 (하이패스/레인센싱 와이퍼/오토 라이트 컨트롤)을 한 데 묶어 컨비니언스 패키지로 제공한다. 인조가죽과 직물시트로 구성된 콤비 시트에 새로운 디자인 패턴을 적용했다.

한국GM 상품마케팅본부 조인상 상무는 "쉐보레 트랙스는 실용성과 안전성, 고객 편의 사양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선사해왔다"며 "앞으로도 트랙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상품성 개선을 통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쉐보레 트랙스는 견고한 차체와 안전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내외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경쟁 모델에 비해 낮은 자차 보험료와 수리비 부담으로 경제성을 자랑한다.

쉐보레는 2015년형 트랙스 출시를 맞아 쉐보레 홈페이지를 통해 도심형 SUV가 갖춰야 할 기능에 투표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고객에게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7월부터 시작했다.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판되는 2015년형 쉐보레 트랙스의 가격은 (자동변속기 기준) △LS 모델 1953만원 △LS 디럭스 패키지 2028만원 △LT 모델 2103만원 △LT 레더 패키지 2184만원 △LTZ 모델 2302만원이다.

/정하늘기자

"아이 안전 엄마·아빠가 직접 지키세요"

SKT·LGU+ 맞벌이 학부모 전용 서비스 눈길

서울 목동에 사는 박혜준 씨(31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다섯 살 된 딸에게 묻는다.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보거나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싫어요. 안돼요. 만지지 마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도와 달라고 해요."

실종·유괴 등 아동 관련 사건 사고가 늘어나면서 맞벌이 부부의 걱정도 한층 깊어지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이같은 고민을 덜고자 관련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위급 상황에서 실제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은 여전하다.

SK텔레콤은 7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키즈 전용 '단말+어플리케이션(앱)+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T키즈폰 준'은 분실의 위험은 없앤 웨어러블 기기로 위치정보와 통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글자를 모르는 유치원생을 위해 사진 선택 만으로 원하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게 했다. 관리자로 등록된 가족은 아이가 자주가는 학교, 학원 등 반경 2㎞ 이내 지역을 안심존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아이가 안심존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부모에게 연락이 간다. 또 지도에서 아이 위치 만 클릭하면 위치 기반 서비스인 T맵이 연동해 최단 거리를 안내해 준다.

SK텔레콤 'T키즈 준 패키지' /SKT 제공

위급 상황에 대한 고민도 엿보인다. T키즈폰 준의 왼쪽에 위치한 SOS 버튼을 누르면 긴급 문자와 함께 자녀의 현재 위치가 부모에게 전송되기 때문이다. 또 미리 가까운 경찰서에 '원터치 SOS서비스'를 신청하면 경찰로 바로 상황이 보고된다고 SK텔레콤은 말했다.

SK텔레콤은 음성통화 30분, SMS 250건, 데이터 100MB가 제공되는 월 9000원의 어린이 전용 요금제도 함께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HD급 홈CCTV를 회전시켜 집안 구석구석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맘(마음) 편한 카메라 '맘카' 홈CCTV를 출시했다. 아기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언제 어디서나 아이 돌보미와 아이의 하루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박혜준 씨는 "아이 혼자 돌아다니는 상황에 제한적인 데다 위급한 상황에서 아이가 당황하지 않고 SOS 버튼을 누를 수 있을지도 의심이 든다"며 "위치 추적 기능 역시 나쁜 사람이 고의로 기기를 다른 곳에 떨어 뜨리면 아이를 찾는 데 더 애를 먹을 수도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서승희기자 ssh@metroseoul.co.kr

체크카드로 통신비 아끼자

KT-롯데 제휴 서비스

KT와 롯데카드가 체크카드를 선보였다.

KT는 롯데카드와 제휴를 통해 통신비 할인과 여러 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올레 롯데 삼삼한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삼삼'이란 이름은 3가지 혜택을 제공하면서 3가지 제약은 없앴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3가지 혜택으로 전월 사용 금액에 따른 통신비 할인, 체크카드 소득 공제와 30% 혜택, 올레스퀘어 및 쇼핑·외식 할인 등이 있다. 이밖에 주거래 은행 계좌 변경 없이 전국 13개 은행 계좌를 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설정하게 했으며 각종 편의와 발급·SMS 수수료는 없앴다.

강이환 KT 마케팅본부 제휴추진담당 상무는 "고객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존의 제휴카드 라인업에 체크카드를 추가했다"며 "앞으로 제휴 마케팅 사례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ujung@

2014 서울오토살롱 개막 D-3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옥외 주차장에서 레이싱 모델 구태희(왼쪽), 김예하가 2014 서울오토살롱 개막 D-day 3알림 알리고 있다. 서울오토살롱은 자동차 애프터마켓과 튜닝 전시회로, 10~13일 4일간 코엑스에서 열린다.

/서울오토살롱 사무국 제공

'호텔 리젠트마린 제주' 5개실 분양

KD부동산신탁이 제주시 탑동에 조성 중인 '호텔 리젠트마린 제주' 회사보유분 5개실에 한해 특별분양을 실시한다.

지하 2층, 지상 11층, 전용면적 25~57㎡, 총 327실 규모로, 분양 마감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높은 성원에 힘입어 회사보유분을 특별분양으로 변경했다. 단지 바로 옆으로 2차 물량이 계획된 만큼, 향후 제주노 내 최대인 약 700실의 랜드마크 호텔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관광객의 증가로 제주도의 숙박난이 심각한 가운데 특히 '호텔 리젠트마린 제주'가 들어선 탑동 일대는 제주국제여객선터미널이 5분대, 제주국제공항이 10분대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다. 또 용두암, 제주민속박물관을 비롯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동문시장, 화랑거리, 칠성로거리 등이 가깝다.

전체 객실의 72%에서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고, 그 외 객실에서도 한라산 조망이 가능하다. 호텔 바로 앞으로 1.2㎞ 거리의 해변 산책로가 있고, 제주도 각종 축제가 열리는 탑동광장도 위치했다.

분양가는 1억5000만원대(VAT 별도)부터 시작한다. 1년간 실투자금 대비 연 11%(담보대출 이자 연 5% 적용시) 또는 분양가의 8% 수익률을 위탁은행사인 (주)미래자산개발에서 보장한다. 문의 02-583-4300

/박선옥기자 pso@

LG전자 'G패드' 시리즈 3종 출시

태블릿PC 시장 확대

LG전자가 사용 편의성을 높인 G패드 시리즈 3종을 새롭게 출시하며 태블릿PC 시장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LG전자는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사용에 적합하면서도 실용적인 태블릿PC를 찾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 'G패드 7.0', 'G패드 8.0', 'G패드 10.1' 등 3종의 보급형 제품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G패드 시리즈 3종은 곡면형태의 매끄러운 유니바디 디자인을 채택했다. 큰 화면에도 한 손에 잡히는 그립감이 장점이다. 특히 G패드 10.1은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돼 오랜 시간 콘텐츠 감상이 가능하다.

전략 스마트폰 G3에 탑재된 사용자경험(UX)도 이번 G패드 시리즈에 대거 탑재됐다. '노크코드'는 여러명이 함께 사용하는 태블릿PC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최대 4명의 사용자가 서로 다른 노크코드 패턴으로 로그인하고 자기만의 태블릿PC를 꾸밀 수 있게 했다. 편의성과 보안성을 갖춘 노크코드는 사용자가 설정한 노크 패턴만으로 화면을 켜는 동시에 잠금 해제가 가능한 차별화된 보안 솔루션이다.

듀얼 윈도우는 태블릿PC 화면을 상하로 나눠 두 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게 해준다. QTV 2.0은 실시간TV, 무료영화, 키즈 콘텐츠 등의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지원한다.

LG전자는 태블릿PC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이달 초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와 함께 G패드 클래본 체험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LG베스트샵을 비롯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11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한다.

/LG전자 제공

/박성훈기자 lbs4038@

빈집털이 걱정 뚝!…'보안' 강화 아파트 눈길

고성능 CCTV 설치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까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 설계가 잇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단독·다가구 다세대 등 일반 주거에 비해 안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주차장·엘리베이터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데다, 여름 휴가철 특히 많이 발생하는 빈집털이 범죄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로 안전인증을 받거나 단지 곳곳에 고성능 고화질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건설사들이 느는 추세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경기도 광주시 역동 'e편한세상 광주역'에 초고화질 풀HD CCTV를 도입한다. 카메라의 화질은 200만 화소,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설치된 41만 화소보다 5배가량 선명하나 단지 출입구서부터 지하주차장, 각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돼 24시간 작동해 범죄를 예방한다.

GS건설도 김포시 장기동 일원 '한강센트럴자이'에 130만 화소의 CCTV를 설치한다. 특히 어린이놀이터와 단지 출입구에는 적외선 CCTV가 시공돼 밤낮 없는 원동 감시가 이뤄진다. 또 비상호출 버튼을 놀이터는 물론 주차장에도 면밀어 위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건설이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짓는 '더샵 리버포레'에는 통합 보안시스템인 '더샵 지키미'가 적용된다. 놀이터나 분리수거시설 등 단지 내 주요 보안 지역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해 이 영상을 스마트폰과 현관의 월패드를 통해 지켜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내부도 탑승 전 미리 확인 가능하다.

삼성물산은 서울 마포구 현석동 '래미안 마포 웰스트림' 전용면적 84㎡ 가구에 라인마다 엘리베이터를 2대씩 설치한다. 근처에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다음 엘리베이터로 옮겨서 이용할 수 있다. 또 자동차 블랙박스처럼 세대 내 침입자 발생 시 자동으로 거실조명이 켜지고, 영상이 녹화되는 전자경비 시스템도 적용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인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예비 인증을 획득한 단지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셉테드는 설계를 통해 범죄 예방을 꾀하는 선진국형 건축 개념으로 한국셉테드학회가 단지 내 범죄 위험 요인과 환경을 종합 심사해 부여하는 범죄 안전 인증을 말한다.

한양이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일대 선보인 '목감 한양수자인'과 호반건설이 시흥시 배곧신도시 B9블록에 분양한 '시흥 배곧신도시 호반베르디움2차'가 최근 셉테드 인증을 취득했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지난 5월 공동주택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설계 단계서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건축법'이 공포됨에 따라 아파트의 보안시스템은 더욱 확충될 전망"이라며 "안전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구도 높아지면서 이 같은 단지들의 선호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산옥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삼성물산 '래미안 마포 웰스트림'에 적용된 전자경비 시스템. 이 시스템을 통해 세대 내 침입자 발생시 자동으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2롯데월드, 민관 협동 산업재해 예방 결의 롯데건설이 최근 잠실 제2롯데월드 현장의 중대재해 재발방지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를 이룩하자'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롯데건설 제공

서울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건수가 지난해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모두 2만1044가구로 2012년의 3만6476가구 대비 4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의 2만7464가구보다 적은 수준으로, 급감세로 볼 때 올해 인허가물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인허가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주차장 건설기준 완화·소음기준 완화·건축물간 거리규제 완화,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설치의무 면제)에 주요 원인이 있다. 단기 공급확대의 순기능이 있었지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환경이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의 주 수요층으로 기대했던 1~2인 가구 조차 열악한 환경에 선뜻 분양에 나서지 않으면서 '애물 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서울에서 인허가 받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9만3138가구(1개구 평균 3725가구 수준)다. 이 중 가장 많은 물량(비중)을 차지한 곳은 강서구로 6924가구(7.43%)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영등포(5462가구·5.86%), 마포(4938가구·5.30%), 구로(4860가구·5.22%), 송파(4843가구·5.20%) 순으로 인허가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 이후 준공/입주까지 2년 가량(도시형생활주택은 공사기간이 1~2년으로 빠른 편)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서울 구별로 재고물량에 대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도시형생활주택과 경쟁관계에 있는 오피스텔도 초과공급에 대한 부작용으로 임대수익률과 매매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우려감이 더 높다. /김두워기자 kimd[illegible]@

지방 중견건설사 '전국' 접수 두각

지방에 뿌리를 둔 중견건설사들이 전국 분양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본사가 위치한 연고지에서 입지를 탄탄히 다진 후 전국적으로 활발한 공급을 펼치며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원, 중흥건설, 반도건설, 계룡건설 등 지방건설사들이 본거지 외 다양한 지역에서 속속 신규분양에 나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대원은 지난달 대전 죽동지구에서 공급한 '죽동 대원칸타빌'이 최고 66.75대 1로 청약을 마감해 화제를 모았다. 청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충북지역 1위 건설사로 지난 2009년 파주 운정신도시에 진출한 이래 지난해 화성 동탄2신도시까지 100% 분양을 완료했다.

중흥건설은 전남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국 시공능력평가 63위의 건설사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1만 가구 이상 분양하며 2년 연속 주택공급 실적 2위를 달성했다. 특히 세종시에서 작년까지 7차례에 걸쳐 선보인 아파트가 100% 계약 마감을 기록했다. 올해 5월 청약을 진행한 '중흥S-클래스 리버뷰2차' 역시 계약률이 80% 수준이다.

반도건설은 부산에서 출발해 업계 최초로 전용면적 59㎡ 아파트에 4.5베이 설계를 적용하는 등 '혁신 평면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0년에는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올 상반기 동탄2신도시에 분양한 아파트도 계약 시작 일주일 만에 완판됐다. 양산신도시와 평택에서 공급한 물량 역시 모두 순위 내 마감을 기록했다.

계룡건설은 대전을 기반으로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1만6000여 가구를 공급한 시공 순위 23위의 중견사다. 2010년 대통령산업포장 대한민국 조경대상에 이어 2011년과 2013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 리슈빌'을 분양해 최고 79.4대 1로 1순위 마감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중견건설사들이 연고지를 바탕으로 쌓아온 분양경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잇달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대형건설사 못지않은 특화평면, 단지설계, 커뮤니티 등을 적용하며 상품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산옥기자

한화케미칼 신입사원 봉사활동 한화케미칼 신입사원 35명이 7일 노숙자 보호시설을 찾아 장마철 대비 텃밭 일구기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화케미칼 제공

“우리도 웨어러블 디바이스 만들어요”

바이오스페이스 유즈브레인넷 등 출사표 - 구글 전용 OS 공개로 3년내 3배↑

모션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조작하고 있다 /유즈브레인넷 제공

웨어러블 헬스케어기기 '인바디'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 국내 중소기업이 뛰어들고 있다.

최근 구글이 웨어러블 기기에 특화된 안드로이드 OS를 공개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던지는 출사표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00억 달러(약 10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3년 내 300억 달러(3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바이오스페이스는 7월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 '인바디'를 출시했다.

전문가용 체성분 분석기 시장 1위 '인바디'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성된 인바디는 보행 수, 활동 시간, 소모 칼로리, 이동거리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손목형 피트니스 헬스기기다.

디스플레이가 있어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버튼 하나만 조작하면 되기 때문에 중장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인바디에서 3D 가속도 센서가 측정한 활동량은 아이폰 4S나 안드로이드 OS 3.0 이상 기반의 블루투스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다.

활동량 데이터는 매일 자정에 리셋되고 보름 이상 저장된다.

또 스마트폰 전용앱 인바디를 활용하면 운동량과 식습관, 체성분을 하나의 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1시간 충전 시 최대 7일 연속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은 14만9600원이다.

유즈브레인넷은 최근 반지 형태의 웨어러블 장치 '모션링'을 선보였다. 반지를 집게손가락에 장착하면 이용자는 모션 동작으로 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다.

손가락을 움직여 TV 채널을 이동하거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 리모컨, 온라인 FPS게임, 프리젠테이션, 웹브라우저, 미디어 플레이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션컨트롤이 가능하다.

게다가 디바이스 호환성이 높아 TV, PC, 안드로이드 스마트폰·태블릿에서 모두 인식할 수 있다. 저전력 배터리를 장착해 연속 동작 6시간, 사용 대기 20시간을 지원한다.

현재 약 80여가지 제스처 동작 인식을 개발했으며 개발자용 API를 공개하고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귀 편한데 소음 차단 기능 아쉬워

꼼꼼 IT 리뷰

■ 필립스 헤드폰 'SHP9500'

헤드폰을 모자나 구두와 같은 액세서리로 인식하는 세상이다.

스마트기기 대중화로 음악과 동영상을 이동 중에 즐기는 사람이 대폭 늘었고 헤드폰은 어느새 '엔드 이어폰'의 성능과 디자인을 커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시중에 나온 제품들은 30분 이상 착용하면 귀에 통증이 느껴지는 약점이 있다. 외부 소음이 들어오고 내부 음향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디자인 탓인 경우가 많지만 아무래도 인체공학적이지 않다.

필립스의 프리미엄 헤드폰 'SHP9500'은 생김새부터 독특하다. 어지간한 여성의 얼굴을 전부 가릴 정도로 크다.

이어패드 역시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귀가 쏙 들어간다. 장시간 착용해도 귀가 아프지 않다.

게다가 헤드 밴드에 쿠션을 넣어 정수리 부분의 통증도 막아준다. 헤드폰의 2대 약점이 스건인 귀와 머리의 통증을 사전에 차단하는 셈이다.

다만 귀를 건드리지 않는 디자인에 치중한 탓인지 외부 소음이 적잖이 들어와 음악 감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특히 내부 음악소리가 옆사람에게 비교적 크게 전달돼 민폐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필립스 측은 "드라이버의 외부(후폭)가 열려 있는 오픈백 설계는 밀폐형 헤드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운드의 왜곡을 방지함과 동시에 고음역대 사운드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즉 거실과 같은 개인공간이나 공원처럼 개방된 곳에서 음악을 즐기려는 사람을 위한 제품이라는 뜻이다.

성능과 멋을 쟁취하자니 귀가 아프고 귀를 편하게 하면 스타일이 살지 않고… 멋, 성능, 인체공학 3박자를 갖춘 제품은 언제 등장할까. 19만9000원.

/박성훈 기자

"라이카T 시스템 나왔다" 현대백화점이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점에서 라이카 100주년 기념 미러리스 카메라 '라이카 T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상파·종편 방송 공짜로 본다

스마트폰에서 지상파는 물론 주요 종편의 방송을 실시간 공짜로 볼 수 있다.

SNS 플랫폼 아프리카TV는 7일 '함께보는TV' 카테고리를 신설했다.

함께보는TV는 KBS1, KBS2 등 지상파뿐 아니라 jtbc, 채널A 등 주요 종편 채널들의 실시간 방송과 다시보기 동영상(VOD)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아프리카TV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함께보기TV 카테고리에 접속해 각 채널의 인기 드라마, 오락, 뉴스 등 원하는 콘텐츠를 전편 무료로 만나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른 시청자와 함께 실시간으로 채팅을 나누며 소통과 공감을 경험할 수 있다.

아프리카TV가 오픈한 '함께보는TV' 카테고리. /아프리카TV 제공

별도의 TV 수신카드나 기타 소스 없이도 누구나 BJ(Broadcasting Jockey, 1인 콘텐츠 제작자)가 돼 해당 방송 콘텐츠를 소재로 자유로운 방송을 할 수 있다.

아프리카TV 안준수 SNS플랫폼 사업본부장은 "함께보는TV는 이를 그대로 같은 콘텐츠를 시청하는 이용자들이 단순 시청을 넘어 실시간으로 의견과 감정,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이용자 유입에 더욱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박성훈기자

“드럭스토어는 뷰티 제품 판매 채널”

SNS 빅데이터 분석 통한 소비자 인식 조사

소비자들은 드럭스토어를 여성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양한 뷰티 제품의 판매 채널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분석기업 '타파크로스'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발생한 25만 여 건의 유효 데이터를 대상으로 소비자 인식과 구매 행태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7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SNS 상에서 드럭스토어에 대해 ▲화장품 향수 등 판매 상품(41.3%) ▲쿠폰 할인이벤트 등 구매촉진요소(33.6%) ▲위치 이용시간 등 매장관련요소(14.5%) ▲로드샵 백화점 등 경쟁 유통채널(10.6%) 크게 네 가지 유형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언급된 드럭스토어는 CJ올리브영(80.6%)이었다. 이 회사는 최초로 업계에 진출했으며 현재 가장 많은 매장 수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GS왓슨스(9.4%)와 롭스(6.5%)가 그 뒤를 이었다. 모두 10%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었다. 더블유스토어나 분스 등 기타 드럭스토어의 버즈량은 이보다 더 적었다.

드럭스토어 주요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상품군을 뷰티(Beauty) 리빙(Living) 푸드(Food) 헬스(Health)로 구분했을 때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은 뷰티 제품이었다. CJ올리브영과 GS왓슨스는 기초화장품이 주요 구매 상품이었고 롭스는 비교적 전 상품군에서 고른 구매 분포를 보였다. GS왓슨스는 최근 인기를 끈 '심슨 시리얼'의 구전 효과로 인해 푸드 상품군의 구매율이 뷰티 상품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기의 드럭스토어, 기회요소는?

최근 드럭스토어 시장은 연 7000억원대 규모로 성장했고 점포수와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수익성이 악화되며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추가 출점 비용과 판촉비가 증가해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1위인 CJ올리브영은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드럭스토어가 가진 고유한 특징이 사회적 트렌드와 맞물려 향후의 성장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우선 활발한 사회진출로 구매력이 높아진 한국 여성들은 미에 대한 관심이 높고 SNS 상에서 다양한 뷰티 정보를 생성·공유하고 입소문을 내는 소비층이다. 또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상품을 한 곳에서 소량씩 구입하고자 하는 라이프스타일 역시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그루밍족'과 같은 남성들은 여러 제품을 체험하고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드럭스토어가 이런 니즈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을 겨냥한 제품과 전략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신지혜 타파크로스 전임연구원은 "SNS 상의 담론 분석을 통해 실제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드럭스토어 시장의 현황과 소구점을 파악해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하고자 했다"며 "최근 정체기에 빠졌다고 평가되지만 다양한 사회현상과 맞물리며 드럭스토어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요소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정혜인 기자 hjung0404@metroseoul.co.kr

여름철 체중 감소…갑상선 의심을

고른 영양 유지가 중요

남성보다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갑상선 질환에는 암이나 결절, 갑상선저하증, 그리고 갑상선항진증 등이 있다. 그중 갑상선저하증과 갑상선항진증은 뚜렷한 통증을 동반하지 않지만 신체 이곳저곳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특히 요즘과 같이 더운 날씨에는 갑상선항진증을 조심해야 한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이 질환은 타인에 비해 갑자기 더위를 많이 타거나 일상생활 중에 땀을 많이 흘리고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또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빨리 뛰거나 손 떨림이 찾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질환의 증상을 높은 기온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 질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더운 날씨에 찾아오는 피로로 느껴 질병을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이 질환은 심부전이나 부정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또 치료 시기를 놓치면 증상이 악화되고 질환이 만성화되면 그만큼 합병증이 심해진다.

이혜진 이대목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갑상선항진증 환자는 잘 먹어도 체중이 감소하기 때문에 고른 영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평소와 다른 불편함을 느낀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질환이 만성화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와인 싸게 구입하면 쿨러백이 무료 홈플러스 시장 도화점는 오는 30일까지 화이트 와인 전체 판매 1위 커스텀로 열 포지오를 할인 판매하고 휴대용 쿨러백 증정행사를 벌인다. /홈플러스 제공

동아오츠카, '나랑드사이다가 간식 쏜다!'

동아오츠카(대표 이원희)가 바캉스의 계절을 맞아 고객 감사 시즌 이벤트 '나랑드사이다가 간식을 쏜다'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유명 쇼핑몰 바가지머리와 함께하는 코어 이벤트로 오는 13일까지 해당 온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나랑드사이다와 다이어트바 소이조이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사이트에 나랑드사이다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쇼핑몰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황재용기자

강강술래 초여름 건강충전 빅 이벤트

상계·사동·늘봄점, '먹은 양만큼 무료포장'
쇼핑몰, 몸보신 한우사골곰탕 40% 할인도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고객들의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 재충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빅 할인 이벤트를 벌인다.

상계점은 오는 10일까지 술래양념/왕양념갈비 메뉴를 시키면 한우불고기를, 한돈 돼지양념구이를 시키면 돼지양념 제품을 주문한 양만큼 무료 포장해 준다.

늘봄농원점도 같은 기간 술래·강강양념/왕양념갈비/한우스페셜/한우모둠구이를 시키면 한우불고기를, 한돈·돼지양념구이를 시키면 역시 돼지양념 제품을 먹은 양만큼 포장해 준다.

또 상계와 늘봄농원점은 한돈양념구이(500g, 2인분)와 돼지양념구이(500g, 2인분) 포장상품을 행사기간 동안 각각 1만6000원과 1만2000원에 1인분 가격으로 판매한다.

시흥점도 11일까지 매장에서 돼지양념구이를 주문한 양만큼 나갈 때 동일 메뉴를 무료 포장해준다(매장 전원 행사의 경우 제외이위 및 경식류 제외).

쇼핑몰(sullae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은 동해선 22일까지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소용량박스(350㎖ 10팩·20인분)는 3만7800원, 대용량박스(800㎖ 6팩·18인분)는 3만8800원에 40% 할인 판매한다.

한편 홈페이지 문화이벤트에 오는 31일까지 신청글을 남기면 브로드웨이 명작 뮤지컬 '시카고' 티켓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1996년 초연 이후 7300회 이상 공연되며 브로드웨이 역사상 3번째로 롱런하고 있는 뮤지컬로 브로드웨이 뮤지컬 안무의 전설 밥 파시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정성립기자

쇼핑·공연·전시 한 번에 하세요

CHICAGO THE MUSICAL

패션업계에 '문화 바캉스' 바람이 불고 있다. 제품 구매 고객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권을 증정, 여름 휴가철 여행 대신 색다른 문화 경험을 선사하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컬쳐 이벤트는 브랜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온라인 멀티 브랜드숍 W컨셉은 뮤지컬 '시카고' 고객 초대 행사를 벌인다.

7월의 굿 쇼핑에 선정된 5개의 브랜드를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뮤지컬 관람권을 증정한다. 5개 브랜드는 프론트로우, 노앙, 클러이노모어, 조쉬앤스테이시, 앤디앤뮤스튜디오 등이 포함됐다.

정통 브로드웨이 뮤지컬 '2014 뮤지컬 시카고'는 최정원·전수경뿐 아니라 가수 아이비와 배우 아중력 등이 출연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SPA 브랜드 유니클로는 27일까지 명동중앙점에서 대림미술관의 '트로이카: 소리, 빛, 시간 — 감성을 깨우는 놀라운 상상'전의 관람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기간 명동중앙점 4층의 포토부스에서 사진을 찍은 후 유니클로 앱에서 사진을 다운로드받은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티켓을 준다.

10월 12일까지 대림미술관에서 열리는 '트로이카'전은 영국의 천재 아티스트 트리오 트로이카의 조각과 드로잉, 설치 등을 선보이는 전시다. /박지원기자 [illegible]

보일듯 말듯 아슬아슬하게…

'컷 아웃룩' 패션 인기…원피스·블라우스·신발 등 전년比 150%↑

지난해 수영복에서부터 시작된 컷 아웃 패션이 최근 들어 원피스부터 구두까지 여름 패션 트렌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인해 온라인마켓에서 밋밋한 옷은 싫고 과한 노출은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한 '컷 아웃룩(Cutout Look)'이 인기를 끌고 있다.

'컷 아웃룩'은 어깨, 옆구리, 등, 쇄골 등 옷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말하며 보일 듯 말 듯한 아슬아슬함으로 은근한 섹시함을 연출해 여름 노출 패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7일 G마켓에 따르면 6월 한달간 이 업체에선 등, 허리 등이 컷 아웃된 '소매플리 트임 원피스' 판매가 지난해 동기 대비 150% 급증했다. 전월 동기와 비교해도 판매가 80% 늘어나는 등 올여름 패션 화두로 인기를 얻고 있다.

블라우스·신발 등의 상품에서도 컷 아웃 상품이 인기다. 6월 한달 간 이 온라인몰에서는 어깨가 컷 아웃된 오프숄더 블라우스 판매가 전년 대비 22%, 전월 대비 31% 증가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컷 아웃 스타일은 노출은 최소화하면서 섹시함은 부각시킬 뿐 아니라 단점까지 커버해주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무더운 여름 시원함과 동시에 스타일까지 더해주는 '컷 아웃룩'의 인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G마켓에서 어깨 부분이 노출된 스타일로 어깨가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언발원피스'를 비롯해 등 부분이 컷 아웃된 제품으로 뒷태까지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브라이 원피스' 등을 선보이고 있다.

조금 더 과감하게 허리 옆뒤가 트여 있는 스타일도 다양하다. '트임원피스'는 허리트임이 속옷이 노출되지 않는 위치라 부담없이 착용 가능하며 슬림한 라인감으로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준다. '스트라이프 옆트임원피스'도 허리 양 옆이 컷 아웃돼 있어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일 듯 말듯한 허리라인이 섹시하게 보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패션의 시작과 완성은 신발이라는 말이 있듯 컷 아웃 구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용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왼쪽부터 프라이 원피스, 스트라이프 옆트임 원피스, 트임원 원피스, 미스트 디테일 컷아웃 스웨이드 오픈

"새 신 신고 바캉스 떠나요"

여름 슈즈 최대 70% 할인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대형 멀티 슈즈숍들이 여름 신발 할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휴양지에서 신기 좋은 스포츠 슈즈, 샌들 등을 최대 70%까지 저렴하게 선보인다.

레스모아는 27일까지 '바캉스 대전'을 실시한다. 이 기간 샌들, 아쿠아 슈즈, 레인부츠 등 여름 제품을 최대 50% 할인하고, 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사진 인화권 또는 타투 스티커를 제공한다.

ABC마트는 다음달 3일까지 '2014 상반기 결산 세일'을 열고 전품목을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한다.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등 브랜드의 스포츠 슈즈와 샌들은 최대 70%, 누오보 등 여성용 신발은 최대 60%, 아동용 상품은 최대 50%까지 싸게 내놓는다.

슈마커는 이달 말까지 '시원하게 화끈하게 휴가 걱정 끝!'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여름 국민 샌들로 떠오른 '테바'를 비롯한 영국 아웃도어 브랜드 '쿠쉬', 미국 대표 샌들 브랜드 '코비안' 등을 최대 40% 파격 할인한다. /박지원기자

마모트, 블로그 10만 달성 이벤트

블랙야크가 전개하는 마모트는 공식 블로그 오픈 1년여 만에 방문자수 10만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2014 마모트 S/S 라인 초이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마모트의 전문 산악인용 제품부터 출퇴근을 위한 패션 아이템까지 다양한 신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

20일까지 마모트 블로그에 포스팅 된 2014 마모트 S/S 제품 라인 중 갖고 싶은 제품명을 비밀 댓글로 쓰면 참여할 수 있다. 선택 범위는 전문 아웃도어 라인인 '투 아웃도어' 라인부터 생활과 밀접한 트래블 스포츠 라인, 다이나믹한 활동에 적합한 모멘텀 라인, 트렌디한 시그니처 라인 등 총 네 가지다.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55명에게 2014 마모트 S/S 라인 제품(제세공과금 22% 당첨자 부담), 베스킨라빈스 교환권, 롯데시네마 영화 예매권 등을 증정한다.

양말은 땀 흡수용? 스타일을 입는다

"가리는 건 센스, 드러내면 더 예뻐…"

최근 덧신이나 페이크 삭스 등 짧은 양말의 인기가 뜨겁다. 여름이면 땀과 마찰로 고생하는 맨발을 위한 아이템이지만 올해에는 다소 이르게 찾아온 무더위와 슬랙스, 클럽 팬츠의 인기로 신발 속 패션까지 신경 쓰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와 함께 화려한 패턴과 색상의 패션 양말도 눈에 띈다. 기능성만을 중시하던 이전과 달리 다양한 디자인의 양말이 속속 출시되며 밋밋한 스타일에 멋스러운 포인트가 될 수 있어 패션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정장 차림에 컬러 양말을 매치하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 지금은 양말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컬러 양말 코디를 쉽게 볼 수 있다.

격식을 따지고 클래식한 느낌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팬츠나 구두와 같은 계열의 톤온톤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좀 더 젊은 느낌을 연출하고자 할 땐 줄무늬 패턴이나 물방울 무늬 등 경쾌한 패턴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다. 이때 팬츠의 밑단은 너무 짧거나 긴것보다 발목을 살짝 드러내는 정도가 적당하다.

데님이나 슬랙스 팬츠로 캐주얼한 느낌을 살리고 더욱 개성 있는 연출을 원한다면 2~3가지 이상의 색이 섞인 화려한 양말을 추천한다. 블랙진 등의 짙은 바지에는 노랑·파랑·녹색 등 원색 컬러의 양말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성들의 경우 스타킹이나 양말과 달리 덧신은 신발을 신으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 전체를 감싸되 복사뼈 위로 올라오지 않고 발등 부분이 파여 있기 때문에 마치 아무것도 신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발을 보호할 수 있다. 아무것도 신지 않은 맨발처럼 보인다는 의미에서 페이크 삭스(fake socks)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와 함께 여성들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의 앞부분이 트인 토오픈(toe-open) 슈즈도 즐겨 신는다. 기존의 덧신은 발가락 부분이 보여 토오픈 슈즈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발가락 부분이 없는 트인 형태의 덧신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남성들 사이에서는 반바지에 양말 없이 신발만 신은 듯한 스타일이 무난하게 인기를 끌고 있다. 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해 보일 뿐만 아니라 다리 전체에서 가장 날씬한 부분인 발목을 노출함으로써 슬림한 체형을 강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목 길이를 세분화한 제품이나 뒤꿈치 부분에 미끄럼 방지 실리콘 처리를 한 양말은 스포츠나 아웃도어 활동에 활용하기 좋다. /김학철기자 kmed104@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중 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선화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와 예쁜 손주 본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닌가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의 개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 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박경원씨(5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은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까다로운 적이 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다들 다 똑같나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셨었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얻었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호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해가 바뀌고 세월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이맘때면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한 맘에 아무 회사나 선택 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 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 2012, 2013년 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 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 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 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본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노출의 계절, 바디 메이크업 이렇게…

쉬머 펄 아이템으로 배끈한 라인 만들기

여름 휴가철 계절이 찾아왔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출을 하고 싶은 상황은 언제'라는 질문에 41.4%가 여름 휴가를 떠날 때라고 답했다. 이처럼 여름 휴가를 떠날 때면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과감한 노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따라 바캉스 시즌에는 노출을 위해 몸의 결점은 커버하면서 보다 매끈한 바디라인을 만들 수 있는 바디 메이크업의 필요성도 부각된다.

바디 메이크업의 첫걸음은 전체적인 바디라인에 볼륨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바디 베이스 제품을 발라주는 것이다. 제품을 바를 때는 팔이나 재형이 뭉치지 않도록 부드럽고 넓게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다. 에뛰드하우스에서 최근 출시한 '탄 바디 글램 씨씨 바디 베이스'는 제형 내의 캡슐이 터지면서 얼룩덜룩한 피부톤을 균일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주며 과도하지 않은 쉬머 골드펄이 햇볕에 노출될 때마다 반짝임을 선사한다. 일로에 캐라일 추출물이 함유돼 있어 자외선에 자극 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목선과 쇄골로 이어지는 라인은 여름철 바디 메이크업에 필요한 필수 부위다. 본래 예쁜 목선과 쇄골을 가지고 있다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간단한 메이크업으로 보정할 수 있다. 본래 얼굴용으로 사용하는 베네피트 '하이라이터' 블러쉬는 고운 입자로 인해 우수한 발색력과 밀착감을 갖춰 쇄골 메이크업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좋다. 쇄골에서 움푹 패인 부분에 잘 브러쉬에 바르면 되는데 브러쉬에 묻은 파우더를 손등에 한 번 털어낸 후 발색을 하는 것이 좋다.

종아리 라인은 하이라이터를 사용해 종아리의 중간 지점을 강조하면 된다. 바디 필통이라고 불리며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베네피트의 'Take a picture... It lasts Longer'는 필통처럼 생긴 케이스 안에 퍼프가 들어있는 바디밤이다. 내장된 벨벳 퍼프를 이용해 다리 정강이와 복숭아 뼈에 바르고 다리 안쪽으로 펴 바르듯이 발라주면 매력적인 각선미를 만들 수 있다.

/정혜은 기자 hjung1404@metroseoul.co.kr

시원하고 짜릿한 휴가를…

오션월드·캐리비안 베이 여름 프로모션

여름을 더 시원하고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에서 휴가시즌을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먼저 대명리조트의 비발디파크 오션월드는 최근 세계 워터파크 TOP4 선정을 기념해 '여름방학 맞이 특가 할인 이벤트'를 25일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중·고·대학(원)생들과 교직원(초·중·고·대학교)이다. 학생은 본인 포함 동반 1인까지, 교직원은 본인 포함 동반 3인까지 입장 가능하다.

또 대명리조트는 리조트 내에 위치한 오션베이(거제), 아쿠아월드(비발디·단양·경주·쏠비치·변산)에서 18일까지 KB국민카드와 함께하는 '특별 균일가 이벤트'를 선보인다. KB국민카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장 매표소에서 KB국민카드로 입장권을 결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캐리비안 베이는 The-K호텔서울과 함께 '캐리비안 베이 패키지'를 준비했다. 패키지는 The-K호텔서울 디럭스 트윈룸 1박 이용권과 조식 뷔페 이용권, 캐리비안 베이 자유이용권 2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원한다면 디너 뷔페를 선택할 수도 있다. 아울러 The-K호텔서울 숙박권과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이 포함된 '에버랜드 패키지'도 마련돼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뉴스

휴족시간 '나이트 아로마향'… 여름 한정판 출시

● CJ LION 휴족시간은 '나이트 아로마향' 쿨링시트를 올 여름 한정으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휴족시간에 연꽃 향을 더한 것으로 시원한 젤 타입 시트가 지치고 부은 다리에 상쾌함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은은한 연꽃향기를 통해 하루의 피로까지 말끔히 씻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붙이고 떼기 간편한 시트 타입이며 아로마 캔들을 피운 것 같이 신선한 향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조성아22, 산소 토닝 팩 클렌저 '포우포우 클렌저'

● 조성아22는 새로운 데일리 팩 클렌저 '포우포우 클렌저'를 8일 오후 11시40분 CJ홈쇼핑을 통해 론칭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품은 제주 신소수를 사용한 산소 토닝 클렌징 거품으로 손상된 피부를 치유하고 수분을 공급해 안색을 밝혀주는 것이 특징이다. 제품 속 블랙캐슐은 에코서트 인증을 받은 모로코 라바 클레이·심해해조류 28가지 숯 등을 함유해 모공 사이사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모공을 늘어지지 않게 조여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JW 메리어트 '바디 슬리밍 트리트먼트' 할인

●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이 다음달 31일까지 마르퀴스 더말 스파에서 '바디 슬리밍 트리트먼트'를 2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슬리밍 트리트먼트는 지방 감소는 물론 토털 안티에이징 바디크림을 통해 피부톤을 개선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호텔은 해당 트리트먼트 이용 고객에게 홈케어 세트 제품을 20% 할인해주고 요가 매트를 증정한다.

캠핑용 BBQ테이블·그릴 판매 7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뮤코르스 바비큐 테이블·그릴 등을 소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16일까지 서울역점, 잠실점 등 80개 점포에서 삼관테이블은 7만9000원, 그릴은 3만500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 제공

세수할 필요 없는 간편한 '클렌징 워터' 인기

노폐물 제거하고 수분 충전
저자극이라 민감성도 안심

여름철 피부관리의 시작은 클렌징이다. 모공 사이사이에 낀 자외선 차단제와 워터프루프 화장, 미세먼지를 말끔하게 닦아내지 않으면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무더운 날씨에는 미끈거리는 클렌징 오일도, 수분까지 빼앗아가는 클렌징 폼도 달갑지 않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별도의 물 세안 없이 간편하고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는 '클렌징 워터'가 각광을 받고 있다. 사용 후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고, 저자극성으로 민감성 피부도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녹두의 해독작용을 바탕으로 만든 '발효녹두 깨끗한 클렌징 워터'는 피지와 메이크업 잔여물을 자극 없이 제거하고, 피부톤과 색소침착을 개선한다. 무향·무파라벤·무색소 처방으로 어린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에스쁘아는 노워시 타입의 '프로 인텐스 클렌징 토너'를 선보였다. 친유·친수성의 세정 성분이 노폐물을 흡착하고, 수용성 보습 성분이 수분막을 형성해 클렌징 후 보습감을 선사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자극이 적어 토너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바이오더마의 '하이드라비오 H2O'는 기존의 '센시비오 H2O'에 수분력을 더한 클렌징 워터다. 비타민 PP성분이 수분 증발을 막고 사과씨 추출물이 수분 통로를 열어 수분의 활발한 순환을 돕는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진짜진짜 산뜻한 제주 탄산 H2O 클렌징 워터' 역시 별도의 이중 세안이 필요 없는 올인원 제품으로 풍부한 미네랄과 탄산 성분이 피지·화장 찌꺼기를 제거한다. 느릅나무 뿌리 추출물이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켜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서희원 기자 pjw@

metro entertainment E

'충무로 핫가이' 오정세 사용설명서

드라마 '개과천선'의 오정세.

"캐릭터 그 자체로 기억되고 싶다 다양한 색깔 내는 배우가 목표"

배우 오정세(37)는 한 마디로 정의내릴 수 없는 매력을 지녔다. 2012년 영화 "남자사용설명서"에서 오정세를 본 관객 대부분이 그를 낯설어했다. 하지만 주인공의 "찌질미"에 반한 관객들은 한류스타 이승재를 연기한 무명배우 오정세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가 생각보다 많은 작품에 등장했단 사실을 알고 놀라워했다. 꾸준히 연기 활동을 해왔지만 사람들은 엔딩크레디트 속 그의 이름 세 글자를 보기 전까지 오정세임을 알아채지 못한다. 배우로서 속상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는 오히려 "못 알아볼 수록 좋다"고 말한다.

영화 '남자사용설명서'의 오정세

◆ 연기할 때마다 얼굴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 알아보기 힘들까

나라는 사람보다 캐릭터 그 자체로 기억되고 싶다. '오정세가 연기를 한다'가 아니라 매 작품마다 백지 상태가 돼서 작품 자체에 녹아들어 연기하고 싶다. 나중에 관객들이 '그게 오정세였어? 연기 잘 하네' 이게 내 목표다. 연극 '이발사 박봉구'로 처음 무대에 올랐는데 저만 몇 명만 신인이었고 다 쟁쟁한 선배들이 출연하는 작품이었다. 그 때 목표는 관객들이 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쟤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이 나올까봐 두려웠다. 그냥 선배들 틈에서 자연스럽게 묻힐 정도로 나쁜 의미로 튀지 않게 연기하려했다.

◆ 그 목표는 성공한 것 같다

성공했다. 막연하게 연기하고 싶은 생각에 시작한 작품이었는데 관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막이 내려오는데 느닷없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수도꼭지 틀어놓은 듯 바닥이 다 젖도록 울었다. 20여 년을 살았는데 그 날 행복이란 단어를 처음 알았다. 몸으로 행복이란 걸 처음 느꼈고 남들 앞에 서는 일이 두려웠지만 계속 하고 싶더라.

◆ 계속 잘 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하이힐' '개과천선' '레드카펫' '아홉수 소년' 등 많은 작품에 등장한다

요즘 들어서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예전에도 많이 했다. 사람들이 몰라봐서 그렇지(웃음). 2006년엔 열 두 작품이나 했다. 역할의 크기가 작기도 했지만 그 사이에 6개월 동안 연극까지 했으니 무척 바빴다. 연극·단편영화·상업영화·드라마 등 가리지 않고 일했고 작품이 없어도 오디션 보러 다니거나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쉴 틈이 없었다. 요즘엔 또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서 더 많이 노출되니까 전보다 바빠 보이는 것 같다.

◆ 아무리 그래도 무명시절엔 많이 힘들지 않았나

작품이 없다고 스트레스 받진 않는다. '배우 1·2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니까 멀리 봤다. 물론 오디션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았지만 '경찰3 역할 하다가 언젠간 경찰1을 하겠지, 언젠간 이보다 더 큰 역할을 맡겠지' 하는 심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올해 단편영화 하나 했으면 내년엔 3개는 하겠지. 열심히 하면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자신감 말이다.

◆ 긍정적인 성격이다

제일 큰 자산이다. 돈이 하나도 없어서 스무 정거장 걸어가는 것과 돈이 있는데도 걸어가는 건 물리적 거리는 같아도 고통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난 후자다. '난 잘났으니까'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꾸준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신과 30년 후엔 지금보다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 그런 생각 쉽지 않은데 멋지다. 이건 칭찬이다

칭찬 싫어한다. 에니 민망하다. 칭찬을 잘 하지도 못하고 받는 것도 어색하다. "연기 잘 한다"는 말을 들으면 '하핫' 원래 잘해요. 이럴까 싶다(웃음). 농담이다. 명색이 배우인데 시선이 집중되는 일이 민망하다. 제일 싫은 건 내 생일이다. 사람들이 '정세야 생일 축하해' 하면서 다가오면 어쩔 줄 모르겠다.

◆ 오정세로 기억되기 싫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음 연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실 이제까지 만족했던 연기는 없다. 주위 반응이 좋아도 아쉬움이 많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 전 최선을 다해도 아쉬움이 늘 남는다. 나음 작품엔 일상적인 느낌의 캐릭터를 맡고 싶다. 사실 유쾌한 인물을 많이 해도 상관없지만 한 가지 색깔만 내는 배우가 될까봐 경계하고 있다. 어떤 장르의 작품에 임하든 전부 다 다른 색깔을 내는 배우고 되고 싶다.

/김지훈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김민주(더블드래곤) 디자인/최송희

박시후 3억 손배소 승소

"태국 뮤직드라마 무산 책임 없다"

배우 박시후(사진)가 한류콘텐츠업체 A사와 벌인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한류콘텐츠업체 A사가 지난해 8월 박시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한류콘텐츠업체 A사는 "2012년 9월 태국에서 20억원대 뮤직드라마 촬영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무산됐다"며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박시후는 양측이 서명한 제대로 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촬영 중단 이유가 태국 현지 위

세에 있다는 것을 모든 당사자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 만일 계약이 체결됐다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개런티 명목의 선지급금이 지급됐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이에 한류콘텐츠업체 A사 측은 "계약이 구두로 합의됐으며 박시후의 전 소속사인 디딤531의 요구로 2억70만원을 지급했다"며 "태국에서 촬영을 진행한 것도 사전 합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태국 촬영이 무산되고 국내에서 촬영을 마무리하기로 한 합의를 박시후 측이 일방적으로 위반했고 개런티도 촬영을 마친 뒤 지급하기로 양측이 합의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박시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선고한 것이다.

박시후는 최근 중국 영화 첫 주연작인 '향기'의 후반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작품은 올 여름 개봉될 예정이다.

/정효진기자 jsonh@

'포스트 빅뱅' 위너 8월 데뷔

YG 8년 만에 내놓은 남성 그룹
다양한 사전 활동 준비된 신인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8년만에 선보이는 남자 신인그룹 위너(사진)가 다음달 1일 데뷔한다.

위너는 '위너 위크'라는 이름으로 YG 공식 블로그에 홍보를 해왔고 6월 '위너 티저 무비 #6'를 끝으로 사전 홍보 활동을 마쳤다. 지난해 8~10월 방송된 서바이벌 프로그램 '윈-후 이즈 넥스트'에서 경쟁 팀을 꺾고 데뷔의 기회를 얻은 위너는 다양한 무대에서 이름을 알려왔다.

위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엠넷 '위너TV', 선배 그룹 빅뱅의 일본 6대 돔투어 오프닝 게스트 등을 통해 무대 경험과 실력을 쌓아왔다.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수 개월에 걸쳐 진행됐던 콘서트 촬영 결과물을 공개하는 '테스트 위크', 위너 데뷔 일환으로 미국 뉴욕 현지에서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촬영한 '뉴욕 위크', 6편의 티저 무비를 공개한 '위너 위크' 등 약 3주간의 프로모션을 통해 위너를 마치 하나의 브

랜드처럼 대중에게 알리고자 했다.

개인별 티저 무비에 이어 '위너 위크'의 마지막 열쇠으로 6일 공개된 티저 무비는 다섯 멤버의 진지한 얼굴과 깊은 눈빛을 클로즈업하며 시선을 끌었다. 다섯 멤버는 깔끔한 셔츠와 넥타이, 페도라 등 다양한 패션 아이템으로 멋을 냈다.

위너가 선보인 티저 무비 시리즈는 태양의 앨범 '라이즈' 티저 영상과 악동뮤지션의 '얼음들' 등을 연출한 신동균 감독이 제작했다. 디올 등 세계적 패션 브랜드의 패션필름에서 촬영을 맡아온 트리스탄 쉐리단이 촬영 감독을 맡았다. 또 영화 '캡틴 아메리카', '폰부스' 등의 제작진이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유순호기자 suns@metroseoul.co.kr

걸스데이 물놀이 유혹 걸그룹 걸스데이의 민아와 유라가 미니 풀장에서 여름을 만끽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7일 유라와 민아는 걸스데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미니풀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사진 1장과 "신흥! 시원~ 빵빵(?)하게 불어 준 걸스데이를 기대해 주세요. 14일 올 여름을 시원하게 녹여드릴게요."라는 게시자를 올렸다. 사진 속 유라와 민아는 가정집 뒷 마당에 마련된 미니 풀장 안에서 깜찍한 의상을 입고 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걸스데이는 오는 19일 서울 광진구 유니클로 악스홀에서 첫 번째 단독콘서트 '썸머 파티'를 갖는다.

/김민희기자 jyy@

에프엑스표 실험 또 통했다

'레드 라이트' 차트 석권… 짙어진 개성 호평

특유의 독특한 퍼포먼스와 강렬한 비주얼로 대중을 사로잡았던 걸그룹 에프엑스(사진)가 화제의 중심에 섰다.

에프엑스는 7일 정규 3집 '레드 라이트'를 온·오프라인에 공개했다. 타이틀곡 '레드 라이트'는 발표한 지 1시간 만에 멜론, 엠넷, 벅스, 올레뮤직, 소리바다, 지니, 네이버 뮤직, 다음 뮤직 등 8개 국내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다.

멜론 실시간 음원 차트에 따르면 컴백무대에서 선보였던 '밀크 와 유나이트'는 10위 내에 진입했다. 또 '나비', '무지개', '까칠스', '블링블링', '별어내', '드라큘라', '종이 심장', '섬머 리버' 등 수록곡 전체가 차트 상위권에 머물렀다.

에프엑스가 매번 실험적인 음악으로 독특한 행보를 이어온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에프엑스는 정규 3집에 소녀의 모습을 벗고 한층 더 무게감 있고 짙어진 개성을 담았다.

'레드 라이트'는 리듬의 반전이 인상적인 일렉트로 하우스 장르의 곡으로 에프엑스 특유의 독특한 퍼포먼스는 물론 강렬한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정성훈기자

E channel

"사랑은 끝나고 감정만 남았다"

LOVE PAWNSHOP

tcast

'마스터셰프코리아'가 야간매점?

과도한 PPL·참가자 수준미달… 러브라인·인스턴트 범벅
취지 벗어난 최악 시즌… '댄싱9' '쇼미더머니' 등과 비교

현재 방송 중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시청자들로부터 극과 극의 반응을 얻으며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엠넷 '댄싱9 시즌2'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프로 댄서들과 숨은 춤꾼들이 대거 등장하며 화제몰이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시즌엔 블루팀에 현대무용단 '피핑톰'에서 활동 중인 김설진과 미국 뉴욕의 시더레이크 컨템퍼러리 발레단의 최수진 등 이미 세계적으로 이름을 널리 알린 실력자들이 등장해 더욱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엠넷 '쇼미더머니3' 역시 언더힙합신의 고수들이 총출동해 첫 방송부터 화제에 올랐다. 지난 3일 방송에선 래퍼 바스코가 등장하자 예선 현장은 물론 온라인까지 술렁였다. 프로듀서 도끼는 "바스코는 '쇼미더머니'가 담을 수 있는 래퍼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양동근 역시 "바스코가 지원자로 나온 것은 모순"이라며 바스코의 랩을 평가하기를 부담스러워했다.

또 YG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인 바비와 비아이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비아이는 준비해 온 랩의 가사를 기억하지 못해 즉흥적으로 프리스타일 랩을 선보였고 합격했다. 바비 역시 '아이돌 래퍼'라는 편견을 깰 만한 실력으로 다른 참가자들의 호응 속에 합격 목걸이를 받았다. 한 참가자는 "인정하긴 싫지만 괜히 YG가 아니다"라며 칭찬했다.

엠넷 '댄싱9 시즌2' 현대무용가 최수진 /CJ E&M

엠넷 '쇼미더머니3' 비아이(왼쪽), 바비(오른쪽) /CJ E&M

올리브TV '마스터셰프 코리아3' 전희연, 후다원 도전자 /CJ E&M

두 프로그램과 달리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한 올리브TV '마스터셰프 코리아3'(이하 '마셰코')는 지난 시즌에 비해 심심하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마셰코'는 식당을 운영하는 프로 요리사부터 고등학생까지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댄싱9' '쇼미더머니'와 마찬가지로 프로와 아마추어 구분 없이 실력을 겨루는 셈이다. 요리를 업으로 삼은 사람이 전업 주부보다 먼저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요리 만화에나 등장할 법한 숨은 고수의 이야기처럼 전달돼 '마셰코'의 재미 요소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참가자들은 앞선 두 개 시즌 참가자들에 비해 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족한 실력은 참가자들의 '러브라인'이 자처했다. 참가자들의 평소 모습이나 성격 등을 살려주는 편집은 프로그램에 재미를 더하지만 과도한 설정과 개입은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또 요리 서바이벌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인스턴트식품이 자주 등장한다. 지난 시즌엔 '냄동 육수로 요리하기' 미션이 등장한데 이어 지난 5일 방송에선 시중에 판매 중인 즉석조리 식품에 참가자의 개성을 더해 특별한 요리로 만들기가 도전 과제로 주어졌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SNS 등을 통해 "'해피투게더'의 '야간매점' 코너인 줄 알았다" "전 국민 요리 서바이벌이라는 본래 프로그램의 취지에서 벗어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마셰코'의 PPL(간접광고)은 원작인 미국 폭스 채널의 '마스터셰프'와 비교 했을 때도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

/김지민기자 ssakim@metroseoul.co.kr

이홍기, 엑소의 보컬 이민기

드라마 '모던 파머' 주연 발탁

FT아일랜드의 보컬리스트 이홍기(사진)가 SBS 새 주말드라마 '모던 파머'(가제)의 남자 주인공으로 낙점됐다.

록밴드 멤버들의 귀농이라는 설정으로 전개되는 이 드라마에서 이홍기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 로커 이민기로 출연한다. 배우 이민기와 같은 이름이라 눈길을 끄는데 이어 극중 소속된 밴드의 이름도 엑소(엑설런트 소울스)다. 이민기는 엑소의 리더 겸 보컬, 기타리스트다.

이홍기는 일본 드라마 '백년의 신부'의 주인공을 맡아 국내뿐 아니라 중국·대만·홍콩·일본 등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얻었다. 그는 최근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 특별출연했고 뮤지컬 '뱀파이어'의 주연에 발탁되는 등 연기자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유기농 청춘 코믹 드라마를 표방하는 '모던 파머'는 드라마 '결혼의 여신'의 오진석 PD와 드라마 '푸른거탑'의 김기호 작가가 의기투합해 제작된다. '기분 좋은 날' 후속으로 10월 18일 첫 방송될 예정이다.

/장소은기자 euno@

MBC 수목극 '운명처럼 널 사랑해' 장혁·장나라 /MBC 제공

"뻔하고 유치해서 보게 된다"

트로트 · 운널사 쉬운 설정·전개 재미↑

코미디 드라마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여름 안방 대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KBS2 월화극 '트로트의 연인'은 지난달 23일 첫 방송 이후 매회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다. 복수와 복합장르를 내세운 동시간대 경쟁작을 바짝 추격 중이다. 지난 2일 첫 방송된 MBC 수목극 '운명처럼 널 사랑해'(이하 '운널사')의 경우 이번 주 시청률이 흥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주말 재방송 시청률이 6.7%를 기록했으며 이는 본 방송 시청률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트로트의 연인'은 소재부터 상큼하다. '흥'을 상징하는 트로트가 귀를 사로잡고 여주인공 최춘희(정은지)의 반짝이 의상이 보는 재미를 더한다. 부끄러운 상황에서 배우들의 양 볼이 붉어지는 만화 같은 연출도 극의 분위기와 어울린다.

지현우·정은지·신성록의 코믹 연기는 몰입도를 높인다. 지현우는 "요즘 드라마가 복수·살인·추리 등인데 '트로트의 연인'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머리를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운널사'는 입소문을 탄 대표적인 경우다. 특히 장혁과 장나라의 딱장아신은 방송 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고 재방송 시청률 상승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딱장아신은 베드신을 귀엽게 표현한 장면이자 작품의 핵심 볼거리이기도 하다.

시청자는 "뻔하고 유치한데 재미있어서 보게 된다"고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연훈기자 laonhj@m

박시연 '최고의 결혼' 복귀

배우 박시연(사진)이 지난해 드라마 '착한 남자' 출연 이후 1년6개월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TV조선은 "박시연이 오는 9월 방송 예정인 '최고의 결혼'에 출연한다"고 7일 밝혔다.

'최고의 결혼'은 이 시대의 연애와 결혼 풍속도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멜로드라마다. 박시연은 극중 전 국민의 주목을 받는 화려한 뉴스 앵커였다가 스스로 비혼모의 삶을 선택하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차기영을 연기한다. 차기영은 모두에게 선망의 대상인 잘나가는 앵커이지만 연애에는 서툴고 성공과 여자로서의 인생 사이에서 고민하는 캐릭터다.

한편 '최고의 결혼'의 극본은 영화 '연애의 목적' '어깨너머의 연인' 등을 집필한 고윤희 작가가 맡았으며 드라마 '베비투게더' '피아노' '스타일'의 오종록 PD가 이 드라마를 연출한다. /김지민기자

로드리게스·오초아 몸값 얼마나 뛸까?

유럽 명문구단 러브콜 쇄도…한국은 손흥민 만 관심

2014 브라질 월드컵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유럽 명문 구단의 러브콜을 받는 특급 신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몸값을 높인 선수는 콜롬비아의 하메스 로드리게스(모나코, 왼쪽 사진)다. 지난해 5월 4500만 유로(약 617억원)의 이적료로 포르투에서 모나코로 이적할 때만 해도 몸값이 부풀려 졌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로드리게스는 실력으로 진가를 확인시켰다.

8강에서 팀이 탈락했지만 6골로 여전히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를 잡기 위해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벌써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나코는 계약이 4년이나 더 남았다고 여유를 부리며 이적료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벨기에의 디보크 오리기(릴)는 화려한 발을 이용한 폭발적인 돌파 능력으로 명문 구단들을 시보잡았다. 잉글랜드의 리버풀과 독일의 도르트문트가 그에게 집중하고 있다. 리버풀은 '핵이빨' 루이스 수아레스를 바르셀로나에 내주고 그 빈자리를 오리기로 채우려 하고 있다.

리버풀은 칠레의 16강 진출에 핵심 역할을 한 알렉시스 산체스도 루이스의 이적 대가로 바르셀로나에서 데려오며 네덜란드의 클라스 얀 훈텔라르(살케04)까지 영입해 공격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골키퍼의 활약이 유난히 돋보인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멕시코의 기예르모 오초아(오른쪽)는 최소 20개 이상의 구단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오초아는 2011년 약물 검사에 걸려 대형 구단으로 이적이 무산됐다. 결국 프랑스의 AC아작시오와 계약했고 현재는 구단과 결별했다. 우소속 신분인데다 과거 약물 복용 번용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판정을 받아 각 구단들의 베팅액은 우탄탱 오르고 있다.

또 다른 스타 골키퍼인 코스타리카의 케일러 나바스(레반테)는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노리고 있다. 지난 시즌 수문장을 맡아 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벨기에 출신 티보 쿠르투아가 임대 기간을 끝내고 잉글랜드 첼시로 돌아갈 예정이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나바스가 빈자리를 대신해 주길 바라고 있다.

반면 한국 선수들의 상황은 좋지 않다. 박주영은 대회 도중 아스널로부터 완전 결별 통보를 받았다. 잉글랜드 2부 리그에 머물러 있던 이청용(볼턴)은 오히려 몸값이 떨어져 상위 리그 활동 욕표는 더 멀어졌다.

그나마 손흥민(레버쿠젠)은 유럽 언론이 꼽은 '리버풀에서 수아레스를 대체할 수 있는 10인의 선수'에 이름을 올리며 유일하게 몸값을 했다.

/유순호기자 sunn@metroseoul.co.kr

평균관중 5만3000명 역대 2위

2014 브라질 월드컵이 역대 월드컵 대회 중 두 번째로 관중몰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월드컵 8강전이 끝난 가운데 국제축구연맹(FIFA)이 밝힌 60경기의 전체 관중은 316만5000여 명이다. 경기당 평균 관중은 5만2762명으로 2006년 독일 대회(5만2491명)의 기록을 근소하게 앞선 역대 2위 기록이다.

이번 월드컵은 개최국 브라질-독일, 아르헨티나-네덜란드의 4강전과 3·4위전, 결승전을 남기고 있다.

역대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관중을 끌어들인 때는 1994년 미국 대회로 24개국 체제이던 당시 52경기의 평균 관중 수는 6만8991명이었다.

델리아 피셔 FIFA 대변인은 "미국 경기장의 수용 인원이 워낙 크다 보니 이 기록은 한동안 깨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경기당 평균 관중수는 4만2000여 명으로 아시아 최초이자 사상 첫 공동개최라는 의미에는 못 미치는 흥행 성적이다. /김성현기자

네이마르 결승 출장 '강력 요구'

"선수생명 걸겠다"… 의료진은 부정적

적추 골절 부상을 입은 네이마르(22 바르셀로나, 사진)가 브라질이 결승에 오를 경우 선수생명을 걸고 경기에 출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브라질의 글로보에스포르테 등 일부 언론은 7일 네이마르가 결승전 출전을 열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콜롬비아와의 8강전에 선발 출장했던 네이마르는 후반 43분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후안 카밀로 수니가에게 무릎으로 허리 차분을 가격당한 뒤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네이마르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척추 골절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브라질 대표팀의 룬코 주치의는 "네이마르의 회복 기간은 약 40일에서 45일 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사실상 월드컵 준결승전과 결승전에 모두 출전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네이마르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네이마르는 이 언론을 통해 만약 브라질이 독일을 꺾고 결승전에 진출한다면 반드시 결승전에 출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브라질 상파울루 지역 신문인 폴라 데 상파울루 역시 "네이마르가 친지들에게 '만일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결승전을 치르게 된다면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주치의는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뿐"이라며 "네이마르가 출전을 감행할 경우 그의 부상은 더 악화되며, 더 오랜 회복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브라질은 오는 9일 오전 5시 월드컵 4강 토너먼트에서 독일과 결승 진출을 놓고 한판 대결을 벌인다. /김성현기자 you@

나성범 '별중의 별' 등극

프로야구 올스타전 베스트 11 확정
전구단 배출…팬·선수 엇갈린 표심

한국프로야구 올스타전 베스트 11이 확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7일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출전할 이스턴리그(삼성 두산 롯데 SK)와 웨스턴리그(LG 넥센 NC KIA 한화)를 대표하는 22명의 선수를 최종 확정했다. 올스타전은 18일 광주에서 개최된다.

최고 인기 선수로 선정된 선수는 웨스턴리그 외야수 부문의 NC 다이노스 나성범(사진)이다. 2년 연속 '별들의 무대'에 나서는 나성범은 99명의 후보 중 가장 높은 57.92점(팬 투표 1위, 선수단 투표 2위)을 획득했다.

지난달 10일부터 4일까지 25일간 포털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진행된 팬 투표에서는 총 178만2008표의 유효표가 나왔고, 감독·코치를 포함한 선수단 투표에서는 271표가 행사됐다.

웨스턴리그 유격수 부문 후보인 넥센 강정호는 총점에서 나성범에 뒤졌지만 올해 처음 실시된 선수단 투표에서 최다 득표 선수의 영광을 안았다.

팬 투표에서 전체 2위인 96만2510표를 받은 강정호는 선수단 투표에서는 194표로 나성범을 1표 차이로 제쳤다. 넥센 박병호가 189표를 얻어 선수단 투표 3위에 올랐다. 박병호는 총점에서도 53.74점으로 전체 3위를 기록했다.

이스턴리그(삼성·두산·롯데·SK)에서는 삼성 3루수 박석민이 53.15점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박석민은 선수단 투표에서도 174표로 전체 4위의 득표를 했다.

웨스턴리그 외야수 부문과 이스턴리그 포수 부문에서는 팬심과 선수단의 마음이 엇갈린 첫 사례가 나왔다. 웨스턴리그 외야수 후보인 LG 이병규(배번 7번)는 선수단 투표에서 76표를 얻어 3위에 올랐지만 팬은 선수단 투표 4위(71표)인 한화 펠릭스 피에에게 더 높은 지지를 보냈다.

이스턴리그 포수 부문에서도 두산 양의지가 선수단 투표에서 가장 많이 득표(103표)됐지만 100표를 얻은 이재원이 팬 투표에서는 67만6247표로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피에는 34.74점, 이재원은 36.87점으로 각각 올스타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특히 이재원은 두산 민병헌, NC 노성호 1점께 데뷔 후 첫 올스타전에 출전하는 기쁨을 맛봤다.

외국인 선수 중에서도 롯데 루이스 히메네스, 두산 호르헤 칸투, 한화 피에 등이 첫 올스타전 출전권을 얻었다.

이 밖에 두산 오재원과 넥센 박병호·서건창, NC 김태군·나성범, KIA 양현종·나지완 등은 처음으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삼성의 마무리투수 임창용은 2004년 이후 10년 만에 올스타전에 나선다.

한편 전 구단에서 올스타 베스트 11을 배출한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KBO는 양 리그 각각 12명의 감독 추천선수를 추가로 선정해 9일 발표한다.

/명성국기자 ysw@metroseoul.co.kr

숨겨온 파이터 본능 '미녀파이터' 송가연이 다음달 17일 종합격투기 로드 FC 무대에 데뷔한다. 7일 로드FC 서두원짐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그는 "말보다는 실천이 더 잘 맞는 것 같다"며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다양한 방송 활동 뒤에 운동 선수로서 능력을 의심받아온 그는 화끈한 경기로 논란을 씻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뉴시스

코끼리 복귀 시대 부름이었나

이현우의 베이스볼 카페

"왜 누이 잡는 시 보르겠어." 지난 3월 시범경기에서 김응용 한화 감독은 20년 가까이 알고 지내온 기자를 보자마자 한숨을 크게 쉬면서 말했다. 그의 얼굴 표정에는 피한이 담겨 있었고 슬퍼 보였다.

김응용은 2001년 삼성 감독에 부임해 사장까지 11년 동안 삼성을 이끌었다. 2010년 말 자리에서 물러난 뒤 2년 동안 제주도에 터를 잡고 생활했다. 외로웠다. 만나는 사람들도 한정됐다. 미디어에서는 간혹 옛날 이야기에 이름이 거론될 뿐이었다.

한대화 감독이 물러나고 미디어는 새로운 감독으로 수많은 후보들을 거론했지만 김응용의 이름은 후보군에 없었다. 그런데 김응용 부임 발표가 나자 모두 눈과 귀를 의심했다. 아직도 선임과정은 베일에 휩싸여 있으나 퇴역한 노장군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돌아왔다.

그러나 동시에 비관적인 시각이 많았다. 한화는 전력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실제로 2013년 한화는 꼴찌를 했다. 에이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고 쓸만한 외국인 선수들도 데려오지 못해 어쩔 수 없었지만 참피스러웠다. 용병술 문제까지 불거졌다. 그래도 한국시리즈 10회 우승의 명장이 아니었던가!

한화는 시즌을 마치고 스토브리그에서 이용규와 정근우를 영입했다. 김응용 감독은 마운드 보강까지 원했다. 외국인 투수만 좋다면할 만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스프링캠프에서 만난 그는 "올해도 힘들 것 같다"고 냉정한 전망을 했다. 얻었던 외국인 투수들이 약해도 너무 약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한화는 마운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전반기 꼴찌가 확정적이다. 후반기에서 기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위권 탈출은 요원하다. 프로야구 한 시대를 풍미했던 노장군의 얼굴은 시름이 가득하다. 정녕 그의 복귀는 시대의 부름이 아니었나? /OSEN 야구전문기자

조코비치 윔블던 패권 탈환

4시간 접전 페더러에 승…세계 1위 복귀

노박 조코비치(2위·세르비아·사진)가 윔블던 테니스대회(총상금 2500만 파운드·한화 425억원) 남자 단식 패권을 탈환했다.

조코비치는 7일 영국 윔블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4시간 가까운 접전 끝에 로저 페더러(4위·스위스)를 3-2로 물리쳤다. 2011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조코비치는 3년 만에 남자 단식 정상에 복귀했다. 경기 후 조코비치는 "생애 최고의 결승전"이라고 평가했다.

8일 새로 발표되는 세계 랭킹에서 라파엘 나달(스페인)을 밀어내고 1위 자리에 복귀하게 되는 그는 "내가 뛴 메이저 대회 결승 가운데 최고였다"며 "물론 나달과의 호주오픈도 있었지만 오늘은 처음부터 마지막 포인트까지 경기 내용이 매우 뛰어났다"고 자평했다.

이날 경기는 수시로 흐름이 요동을 치며 경기장을 가득 메운 1만5000여 관중의 가슴을 태웠다. 1세트에서 타이브레이크 끝에 페더러가 기선을 잡았지만 조코비치가 이내 반격에 나서 2·3세트를 가져갔고 4세트에서는 게임스코어 5-2까지 앞서 나갔다.

하지만 이때 페더러가 대반격에 나서 승부를 5세트로 넘겼고 5세트에서도 페더러가 조금씩 우세한 양상을 보이다가 결국 게임스코어 4-5에서 맞이한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키지 못하면서 조코비치가 최후의 승자가 됐다. /정성준기자

프로야구 전적 7일

■ 사직

팀				계
SK	020	400	010	7
롯데	001	020	000	3

■ 마산

팀				계
LG	010	000	000	1
NC	400	000	00X	4

NCSI
6년연속 소주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한여름밤
부드러운 처음처럼
HAPPY
SHAKE!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